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5년 2월

석사학위논문

한국과 APEC 국가간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무역효과 분석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왕 기 기

한국과 APEC 국가간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무역효과 분석

A Study on the Trade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between Korea and APEC Countries

2015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왕 기 기

한국과 APEC 국가간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무역효과 분석

지도교수 김석민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왕 기 기

왕기기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전 의천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제홍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석민 (인) 

2014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제2절 연구의 방법 구성	4
1. 연구의 방법	4
2. 연구의 구성	5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6
제1절 해외투자의 유형	6
1. 해외직접투자	6
가. 해외직접투자의 개념	6
나. 해외직접투자 유형	7
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제도	9
2. 해외간접투자	10
가. 간접투자의 정의	10
나. 간접투자의 유형 및 특징	11
제2절 해외직접투자의 효과	12
1. 해외직접투자의 수출효과	12
2. 해외직접투자의 수입효과	16
3. 해외직접투자의 단계별 수출입 효과	16
제3절 해외투자의 무역효과 관련 선행연구 검토	21
1. 해외문헌	21
2. 한국문헌	24

제3장 한국의 對APEC 무역구조 및 투자현황	27
제1절 세계 해외투자 현황	27
1. 세계 해외투자 개황	27
2. 지역별 해외직접투자분석	28
3.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동향	30
가. 해외직접투자 유출 동향	30
나. 해외직접투자 유입 동향	32
제2절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투자유치 현황	35
1. 해외직접투자 현황	35
가. 지역·국가별 동향	35
나. 업종별 동향	37
다. 기업규모 및 투자규모별 동향	39
2. 외국인투자유치 현황	41
가. 업종별 현황	41
나. 국가별 현황	42
다. 대상별 현황	43
2.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투자유치의 문제점	43
제3절 한국의 對APEC 무역구조 및 투자 현황	44
1. 한국의 對APEC 무역구조	44
가. 부문별 수출입 추이	44
나. APEC 국가별 상품무역 추이	45
다. 국가별 상품무역수지 추이	47
2. 한국의 對APEC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유치 현황	48
가. 해외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투자 추이	48
나. APEC 회원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49
제4장 한국 對APEC 투자의 무역효과 실증분석	51
제1절 모형 및 가설의 설정	51

1. 연구의 모형.	51
2. 연구가설의 설정	52
제2절 한국의 對APEC 무역패턴 분석	55
1. 분석자료와 모형의 검정	55
가. 분석자료의 수집	55
나. 연구모형의 검정	56
2. 한국의 對APEC 무역패턴 분석	61
제3절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유치의 무역효과	64
1.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분석	64
가. FDI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	64
나. FDI가 수입에 미치는 효과	67
2. 외국인투자유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분석	70
가. 외국인투자유치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	70
나. 외국인투자유치가 수입에 미치는 효과	72
제4절 가설의 검증 및 정책적 시사점.	74
1. 해외투자의 무역효과 가설검증 결과	74
가. 해외직접투자의 무역효과 가설검증 결과	74
나. 외국인투자유치의 무역효과 가설검증 결과	76
2. 분석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77
가. 해외직접투자 지원정책의 효율성 확보	77
나. 신흥국 정보 제공 확대 필요	78
다. 맞춤형 전문 인력 교육 제도 강화.	78
라. 중소기업 현지법인 경영 및 수출입 지원 강화	79
마. 해외사업에서의 상생협력 구축	79
바. M&A 지원 강화	80
사. 무역수지 악화 분야의 모니터링과 구조조정 대응	80
아. 무역에 대한 시각 조정과 통상 협력	81
제5장 결 론	82

참고문헌 87

표 목 차

<표 2-1>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	14
<표 2-2> 해외직접투자가 목적별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	17
<표 2-3> 해외직접투자 단계별 무역에 미치는 효과	20
<표 3-1> 전세계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 추이	32
<표 3-2> 전세계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추이	34
<표 3-3> 한국의 최근 5년간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35
<표 3-4> 한국의 최근 5년간 아시아 주요국 해외직접투자 추이	36
<표 3-5> 한국의 최근 5년간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37
<표 3-6> 한국의 최근 5년간 제조업 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38
<표 3-7> 한국의 최근 5년간 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39
<표 3-8> 한국의 최근 5년간 투자규모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40
<표 3-9> 한국의 업종별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	41
<표 3-10> 한국의 국가별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	42
<표 3-11> 한국의 대상별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	43
<표 3-12> 한국의 對APEC 부문별 수출입 추이	45
<표 3-13> 한국의 APEC 회원국별 상품무역(Total Merchandis) 추이 ...	46
<표 3-14> 한국의 APEC 회원국별 상품무역수지 추이	47
<표 3-15> 한국의 對APEC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유치 현황	48
<표 3-16> 한국의 APEC 회원국별 제조업부문 해외직접투자(FDI Flow Outward) 추이	50
<표 4-1> 사용 변수의 기초 통계량.	56
<표 4-2> 1계 자기상관을 가정한 패널 GLS 분석 결과	62

<표 4-3> FDI의 산업별 수출효과 분석(GLS, FE Model) 결과(1/2) ……	65
<표 4-4> FDI의 산업별 수출효과 분석(GLS, FE Model) 결과(2/2) ……	66
<표 4-5> FDI의 산업별 수입효과 분석(GLS, FE Model) 결과(1/2) ……	68
<표 4-6> FDI의 산업별 수입효과 분석(GLS, FE Model) 결과(2/2) ……	69
<표 4-7> 외국인투자유치의 산업별 수출효과 분석(GLS, FE Model) 결과(1/2) ……	70
<표 4-8> 외국인투자유치의 산업별 수출효과 분석(GLS, FE Model) 결과(2/2) ……	71
<표 4-9> 외국인투자유치의 산업별 수입효과 분석(GLS, FE Model) 결과(1/2) ……	72
<표 4-10> 외국인투자유치의 산업별 수입효과 분석(GLS, FE Model) 결과(2/2) ……	73
<표 4-11> 한국의 對APEC FDI의 무역효과 가설검증 결과 ……	75
<표 4-12> 한국의 對APEC 외국인투자유치의 무역효과 가설검증 결과 ……	77

그림 목 차

<그림 2-1>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개요도	14
<그림 3-1>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 추이	29
<그림 4-1> 변수 간 표준상관계수 측정 결과	57
<그림 4-2>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측정 결과	57
<그림 4-3> LR(Likelihood Ratio) 검정 결과	58
<그림 4-4> Wooldrige 검정 결과	59
<그림 4-5>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결과	60

ABSTRACT

A Study on the Trade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between Korea and APEC Countries

Wang, Qiqi

Advisor : Prof. Kim, Seogk-min, Ph.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thesis focuses on Korea trade 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Specifically, Korea joined APEC in 1989, with other APEC member countries as the research object, analyze the Korean trade 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research, thus it is concluded that the Korean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the Korea the impact of international trade. On this basis, according to Korea in other APEC members tates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more effective trade policies are put forward.

In 2013, the Korean foreign direct investment growth rate of 14%, rose by \$33 billion from a year ago, rank the 13th largest in the world.

Korea export-import bank published an article titled "2013 world over seas direct investment trend sand out look" report. The report shows that "Due to the effect of the EU financial crisis and world economic recess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all over the world are depressed. Compared with the previous year, reducing overall by 13%, investment amount has reduced \$ one million 391 billion. On the contrary, Korea has a slight increase."

The United States ranks the first place with \$328.8 billion, Japan ranks

the second with \$122.5 billion, China ranks the third with \$84.2 billion. In developed countries, Italy in the 14th, Norway in the 18th, and Australia in the 23th. In the analysis of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57%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41% investment in developed countries.

However, Korea overseas investment focus on manufacturing and mining, unable to analyze the trade effects. So need multilateral investment and trade effect determination of related research.

Asia-pacific region population accounts for 36.6% of the world's population, 51.7% of the world's national output, 48.7% of the world's trade volume.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s history, cul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level are different.

And Korea's main target of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more focus on the asia-pacific region. Overseas direct head to the country's economy and trade the impact of the present state of the coexist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To transfer abroad of loss of comparative advantage in manufacturing, not only helps to solve the domestic labor shortages, but also exports to overseas branch for raw materials. So in a third country market deepens with the domestic same enterprise competition. By importing make are eating into the possibility of domestic market is also very high.

So, in order to formulate effective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prior to analyze the 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research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Korean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Korean import and export trade as the main purpose in the research.

In order to better achieve the purpose, this research conducted a theoretical discussion and empirical analysis by constructing econometric model, can work with a mixture of both .Specific research object and research scope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rough the analysis of each industry, find out the difference of trade 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hus derived a new revelation

Secondly, through the analysi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dva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mediate goods and final goods, to better grasp the existence of the form of the 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rade in Korea.

Finally, wit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s the foundation, thus put forward related to overseas direct investment and industrial structure.

In the empirical analysis, the set of variables of various industries including Korea imports and exports, foreign direct investment amount, the distance between transaction object and the gross national product,

Key word : FDI, APEC, MTI, Gravity Model, Portfolio.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최근 글로벌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 진출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는 세계경제의 통합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직접투자가 투자국뿐만 아니라 투자유치국 모두에 이익을 준다는 사실이 검증되어 왔다. 일례로 세계은행(World Bank)은 해외직접투자가 기술이전, 경영노하우, 수출시장 접근 등에서 이익을 가져온다고 보고하였으며,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국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생산방법의 사용 및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며, 투자유치국 입장에서는 선진기술과 경영노하우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상당한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의 2013 세계투자리포트(World Investment Report 2013)¹⁾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대외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 비중은 2000년 11.1%에서 2012년 31%로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68년 12월 “외국환관라규정”에 해외투자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면서 이 시기 한국남방개발의 인도네시아 산림개발업 투자로부터 시작되었다. 1980년대까지는 투자 금액 및 규모가 매우 미비한 수준이었지만 1980년대 후반 들어 국제수지 혹은 누적과 선진국으로부터의 개방 압력 등 국내외 경제여건변화에 따른 자본유출을 촉진하면서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도 점진적

1) 세계투자리포트는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가 매년 발간하며, 각국의 통계기관(주로 중앙은행이 담당)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세계 해외직접투자 통계 및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으로 자유화 되었다. 1990년대 후반 들어서는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잠시 주춤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4년부터 다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에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7.0%가 증가해 사상 최고치(229.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그동안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빠른 증가추세를 실현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점유율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3년 해외직접투자에서 전년도 대비 14%가 증가한 330억 달러를 기록 세계 1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가 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교우위를 상실한 제조업체의 해외이전은 국내 노동력부족 해소에 기여하면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원부자재 및 자본재 수출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제3국 시장에서 국내동종기업과 경쟁이 심화되고, 역수입으로 인한 국내시장 잠식도 예상된다. 한편 선진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새로운 기술의 습득과 내수 시장 침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증대하는데 기여한다. 만약에 해외투자가 보호장벽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해외생산은 국내생산 및 수출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세계화시대 하에서 국제경쟁력 강화가 주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면서 해외직접투자증대의 당위성이 거론되는 한편, 일각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제조업의 기반을 약화시킴으로써 소위 ‘산업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²⁾

이러한 상황에서 설득력 있는 정책대안이 제시되려면 우선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APEC 국가 간 해외직접투자가 한국의 수출 및 수입에 미치는 무역효과를 산업별로 파악하고 그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려는데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해외직접투자는 세계화의 진행이 매우 빠른 현 시점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2) 유재원,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무역 및 생산효과,” 「국제경제연구」, 제2집, 제2호, 한국국제경제학회, 1996, p. 134.

크고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해외직접투자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생산, 판매를 함으로써 생산 기술 및 경영기법 등을 현지로 이동시키는 것도 포함한다. 이는 투자 기업들이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내부의 장점을 국내에서 외국 시장으로 이전한다는 것과 같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세계 생산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듯 해외직접투자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상관관계가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투자유치국의 경우에는 이전을 통한 자본의 증가에 따라 고용량이 늘어나고 실질 임금이 상승하며 국내 저축과 투자를 증가시키고 수출을 늘려 국제수지를 개선시킨다. 뿐만 아니라 경쟁을 촉진시키고, 선진기술과 경영노하우에 쉽게 접근하게 됨으로써 유치기업뿐만 아니라 유치기업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업의 생산성 또한 증가시키게 된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있다. 하지만 투자 유치국의 경제를 지배하고 주권을 침해하여 경제의 자유성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투자국의 경우에는 자본의 유출을 의미하므로 이자율과 실업률의 상승을 야기할 수 있고 국내 경제의 산업 공동화의 우려도 있으므로 무분별한 해외직접투자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한편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세계 인구의 36.6%, 국민총생산의 51.7%, 교역량의 48.7%를 차지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태평양국가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역사·문화·경제발전단계 등이 모두 상이하다. 또한 APEC은 한국의 주요 무역대상지역이며, 해외직접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APEC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투자유치가 한국의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주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유형 및 특징, 해외직접투자의 무역효과를 이론적으로 정립한다.

둘째, 한국의 對APEC 투자 및 무역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특징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셋째, 계량분석모형을 통하여 각 산업별로 한국의 對APEC 해외직접투자의 무역효

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한다.

넷째, 계량분석모형을 통하여 각 산업별로 한국의 APEC국가로부터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발생시키는 무역효과를 산업별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방법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해외투자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본 논문이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였다.

한국의 전세계 및 APEC 지역에 대한 무역 및 투자통계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시스템, UN Comtrade Database 및 APEC의 Bilateral Linkages Database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분석기간은 1995년부터 2013년까지의 총 19년간의 자료이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무역효과에 대한 다양한 실증연구 사례 분석을 통해 산업별 특성에 기초한 설명변수(가설)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추정모형은 중력모형을 기초로 한 패널분석모형이다. 패널분석의 장점은 일반적으로 횡단면 자료나 시계열자료의 수가 부족하여 분석상의 통계적 유의성에 의심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패널분석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대상그룹 사이의 고유특성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횡단면 자료분석 또는 시계열 자료분석에서 나타나지 않는 효과까지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횡단면 자료의 경우 시간에 따라 일정한 관찰이 불가능한 ‘표본의 특이성’을 고려하지 못하지만, 패널자료는 오랜 기간의 횡단면 자료관찰을 통해 표본의 특이성뿐만 아니라 표본들 간의 공통적 성질까지 분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통계적 처리는 ‘STATA Special Edition Ver. 11.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2. 연구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연구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 연구의 배경 및 주요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논문의 구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2장은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로 해외직접투자의 유형 및 무역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술하였으며, 해외투자의 무역효과와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제3장 한국의 對APEC 투자현황 분석에서는 세계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의 동향 및 전망, 그리고 한국의 對APEC 무역구조 및 투자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중력모형을 기초로 한 패널분석모형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對APEC 해외직접투자의 무역효과와 한국의 APEC국가 외국인투자유치의 무역효과를 MTI 1단위의 산업별(농림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섬유류,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전자전기제품)로 세분화하여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전반적으로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해외투자의 유형

1. 해외직접투자

가. 해외직접투자의 개념

해외직접투자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³⁾,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의가 가장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OECD는 해외직접투자를 “해외기업과 지속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수립할 목적에서 피투자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라고 정의⁴⁾하고, 통계적 목적을 위하여 10% 이상의 지분투자를 해외직접투자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투자현지에 경영참가나 기술제휴를 목적으로 자본 생산시설 경영기술 등 생산요소를 현지에 이전시키는 것으로 해외 자회사 설립 이미 설립된 회사 인수 해외기업에 대한 지분참여와 장기자금 대부 등이 있다.

기업이 해외의 피투자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지분을 획득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본 및 생산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복합적으로 해외로 이전시키는 기업활동을 의미한다.

Howestine(1982)는 해외투자를 투자자의 경영참가 여부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로 구분하였으며,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간의 장기적 자본 이동으로서 생산기술, 경영기술, 판매기술 등이 포함되어 이루어지는 투자를 말한다.

3) IMF는 “본국 이외의 국가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에게 지속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유엔다국적기업센터(UN CenterforTransnationalCorporation)는 “특정 기업이 경영의 영속적인 지배를 목적으로 외국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을 확장하기 위한 투자”라고 정의하고 있음.(변재웅, 「해외직접투자론 I ; 이론과 전략」, 비즈프레스, 2010, p.14.)

4) OECD, *Handbook on Economic Globalisation Indicators*, 2005, p.49; OECD, *Benchmark Defini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ourth Edition, 2008, pp.48-49.

해외직접투자는 투자대상국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산요소의 이용과 시장확대, 제3국으로의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 확보에 활용되며 투자목적에 따라 크게 해외시장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수평적 FDI(Horizontal FDI)와 생산 분화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수직적FDI(Vertical FDI)로 구분된다. 수평적 FDI(Horizontal FDI)는 현지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수출과 같은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무역과 대체관계를 이루게 되고, 수직적 FDI(Vertical FDI)의 경우 생산비용의 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생산요소가 저렴한 국가에 거점을 두고 생산된 재화를 본국으로 재수입하기 때문에 보완관계를 갖는다. 즉,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재화의 수출입과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평적 FDI (Horizontal FDI)와 수직적 FDI(Vertical FDI) 두 유형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최근에는 수출 기반형 FDI와 복합형 FDI를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의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8호에서는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또는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는 OECD와 같이 10% 이상의 투자지분을 해외직접투자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해외직접투자의 유형

이러한 해외직접투자는 결합형태, 설립형태, 소유형태 등의 기준에 의해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결합형태에 따라 규모의 경제와 국제분업에 따른 이익을 위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최종재 생산을 위한 중간재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수직적 FDI(Vertical FDI), 투자기업이 자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 판매하기 위하여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하는 수평적FDI(Horizontal FDI),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다른 제품을 현지국에서 생산하기 위한 다각적

(Conglomerate) 해외직접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수평적 FDI(Horizontal FDI)는 해외시장개척을 목적으로 관세와 운송비용 등을 포함하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절감을 위해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형태로 무역과 대체관계를 갖게 되며 현지 시장규모가 크고 고정비용이 낮을수록 대체관계는 커진다. 즉 양국간의 무역장벽이 높을수록 수평적 FDI(Horizontal FDI)는 증가하게 되어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을 대체하게 된다.

Markusen and Venables(1998)에 따르면 수평적 FDI(Horizontal FDI)는 경제발전 정도가 유사한 대국(Large Country)과 기술수준 및 요소부존도 등이 유사한 국가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수직적 FDI(Vertical FDI)는 국제 간 요소가격의 차이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생산요소가 저렴한 국가에 거점을 두고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즉 수직적 FDI(Vertical FDI)는 국가간에 요소가격이 상이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때 수직적 생산공정 중 일부를 현지로 이전하게 되며 생산된 재화는 주로 본국이나 제3국에 수출된다.

수평적 FDI(Horizontal FDI)가 경제규모, 기술수준, 요소부존도가 유사한 국가 간에 발생하는 것과 달리 수직적 FDI(Vertical FDI)는 임금이 높은 선진국과 임금이 낮은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주로 발생한다. 따라서 수직적 FDI(Vertical FDI)는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생산네트워크를 활용해 무역창출효과를 갖게 된다.

수출기반형 FDI(Export-Platform FDI)는 해외시장개척의 목적보다는 제3국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의 해외직접투자이다. 경제통합이 진전되면서 수출기반형 FDI(Export-Platform FDI)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 때의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경제통합지역 내의 저임금국가에 생산거점을 이전하고 블록 내 전체 시장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제3국으로의 수출이 새롭게 발생한다면 무역과 보완관계 갖게 되며 기존에 수출이 되고 있는 경우에도 현지생산으로 인해 생산비용이 절감된다면 수출량이 확대되는 효과를 갖는다.

복합형 FDI(complex FDI)는 수평적 FDI(Horizontal FDI)와 수직적 FDI(Vertical

FDI)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형태로 제3국을 또 다른 생산공정단계로 이용하기 위해 투자대상국을 중간공정단계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 때 공정단계를 분업하여 생산 거점을 이전하는 측면에서 수직적FDI(Vertical FDI)의 특성을 가지며 최종재의 생산 공정은 목표로 한 제3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수평적FDI(Horizontal FDI)의 특성을 갖는다.

둘째, 최초 투자시 설립형태에 따라 기업이 현지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진출하는 신설투자(Green Field Investment)와 현지국에 있는 기존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인수·합병(M&A)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소유형태에 따라 투자지분을 100% 전액 출자하여 완전소유 자회사를 설립하는 단독투자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경영의사결정에도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작투자(Joint Venture)로 구분할 수 있다.⁵⁾

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제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제도는 1968년 제도도입 초기에는 원칙규제-예외허용 기조를 유지하다가 시대적 경제상황과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 자유화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1974년까지는 해외자원개발과 수출촉진 등 제한적 분야에 한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허용하였고, 1975~1979년 기간 중에는 한국은행의 사전승인제를 시행하였다. 1980~1985년 기간 중에는 사전승인제를 폐지하고 해외직접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1986~1990년 기간 중에는 개인의 해외직접투자를 허용하고 해외부동산투자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였다. 1991~1998년 기간 중에는 해외직접투자 '자동허가제'를 도입하고 해외부동산투자도 자유화하였으며, 투자허가기관도 종전의 한국은행 외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으로 다원화하였다.

1999년부터는 민간주도원칙에 입각하여 해외투자가 본격적으로 자유화되었다. 1999~2005년 기간 중에는 해외직접투자 심의제도 폐지, 해외직접투자 자격요건 추가 완화 및 신고대상 목적물확대,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조항 신설 등의

5) 변재웅, 「해외직접투자론 I; 이론과 전략」, 비즈프레스, 2010, pp.18-32.

조치가 이루어졌다. 2006년 이후에는 해외직접투자의 신고대상 목적물 추가 확대, 대외채권 회수의무제도의 신고제 전환,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전면 허용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현재는 일정한 절차에 따를 경우 대부분의 해외직접투자는 사실상 자유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거주자가 기존 해외사업의 증액을 포함하여 새로 투자하는 경우, 기존신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대부분 자 원리금 회수의 경우, 현지법인을 청산하여 분배잔여재산을 회수할 경우에 각각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피신고기관으로는 금융기관의 금융·보험업 투자는 금융위원회, 금융기관의 비금융업종 투자는 금융감독원, 개인 또는 법인의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는 한국은행, 제조업 등 그 외의 전 업종에 대한 개인 및 법인의 투자는 외국환은행으로 되어 있다. 다만, 신규투자 신고를 할 때 해외자원개발사업, 농수축산물, 임산물, 해외건설업의 경우에는 신고 전에 주무부처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시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업계획서, 납세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 투자자 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합작계약서·금전대차계약서·현물투자명세표 등 투자형태별로 필요한 서류와 신용불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신용정보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해외투자자는 투자신고 후에도 피신고기관에 외화증권취득·송금·연간사업실적·청산 등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외국환거래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⁶⁾

2. 해외간접투자

가. 간접투자의 정의

해외간접투자(FPI : Foreign Portfolio Investment or Foreign Indirect Investment)란 투자자의 경영참가 없이 배당이자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로 외국주식

6) 이학노, “해외직접투자의 수출입유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제조업부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pp.7-9.

이나 채권 매입 금전 대출 등이 있다.

이자, 배당, 자본이득 등을 수취하기 위하여 외국의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는 투자목적이 경영권 획득에 있으나 해외간접투자는 경영참여 의사가 자본이득 수취에 투자목적이 있는 형태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해외간접투자는 상당 부분 제한이 되는데, 첨단기술 도입 또는 수출애로의 타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투자자의 외환증권 투자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적인 해외투자인 해외직접투자를 정확히 정의하자면 기업이 해외의 피투자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비준을 획득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본 및 생산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복합적으로 해외로 이전시키는 기업 활동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간접투자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유가증권 등 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는 개인투자자부터 자금을 모아서 다수의 유가증권이나 기타 재산을 투자하는 금융중개 기관을 말한다. 미국에서 1940년의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에 따라 투자회사는 주로 관리형 투자회사(Managed Investment Company)와 단위형 투나신탁(Unit Investment Trusts)을 나눈다. 또는 뮤추얼펀드와 수익증권이라고 한다⁷⁾.

나. 간접투자의 유형 및 특징

국제포트폴리오투자는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채권(국채, 사채)의 매입, 기존발행채권 및 주식의 매입과 금융기관 등의 의한 중장기 대출 등 형태로 실현된다.

해외간접투자는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적고 수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의 예를 들면 모든 투자에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해외간접 투자할 때

7) Zvi Bodie, Alex Kane and Alan J. Marcus, *ESSENTIALS OF INVESTMENTS*, McGraw-Hill Irwin, 2005. pp.108-112.

7가지의 특정한 리스크가 있다. 첫째, 환율의 변동성이다. 국내 통화와 외국 통화 간의 환율이 변동하면 투자 수익률이 증가하나 감소할 것이다. 둘째, 시장 가치의 등락이다. 모든 시장은 시장 가치가 급등락할 수 있다. 이런 가격변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급변동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 투자하는 방법을 택해 가치의 급등락을 피하는 것이다. 셋째,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문제가 시장 리스크의 원인 중 하나다. 투자자들은 외국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와 장기간 투자하는 방법과 사회 요소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요소들이 시장 투자의 다양화와 국제투자의 리스크의 원인이다 넷째, 유동성이 부족하다. 외국 시장의 일부가 개방하는 시간이 짧고 일정 주식만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한다. 다섯째, 정보가 부족하다. 많은 나라는 미국증권시장과 달리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보를 찾기 힘든 것뿐만 아니라 찾을 수 있는 정보는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여섯째, 외국법으로 정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 투자할 때 문제가 생긴다면 그 회사를 소송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⁸⁾

제2절 해외직접투자의 효과

1. 해외직접투자의 수출효과

먼저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거시적 측면에서는 투자국(Home Country)과 투자유입국(Host Country)간의 생산요소, 즉 자본 부존량을 변동시킴으로써 생산요소가격 및 산업구조 그리고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쳐 무역구조를 변화시키게 된다. 전통무역이론에 의하면 모든 국가의 생산함수가 동일하다면 해외직접투자 등 생산요소의 이동은 무역을 대체한다고 분석하고 있다.⁹⁾ 결국 무역을 발생시키는 기본적인 원인은 양국간 요소부존의 차이에서 연유되므로 해외직접투자

8) 오초균, “해외 간접투자 확대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p. 16-17.

9) Mundell, R. A., *International Economics*, The MacMillian Company, 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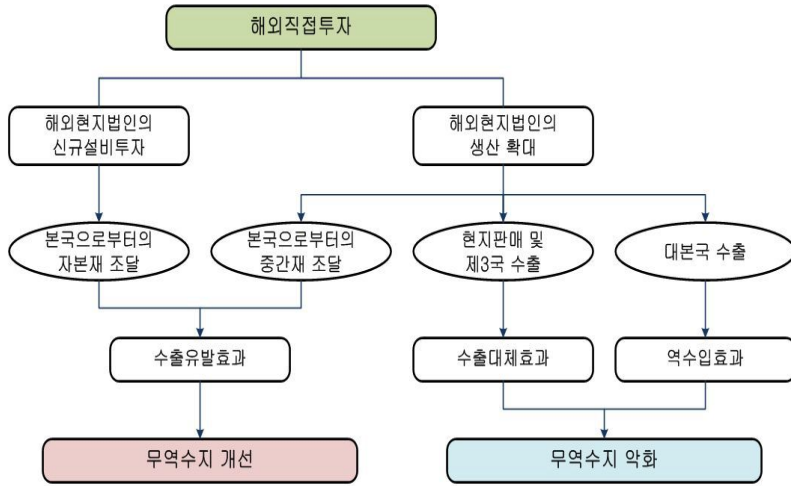
등을 통한 생산요소의 이동은 양국간 자원의 부존도 차이를 축소시킴으로써 교역이 축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국가간의 생산기술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자본의 국가간 이동은 무역을 보완하는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해외직접투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본생산성이 높은 국가에서 더 많은 생산과 수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미시적 측면인 기업활동적 측면에서 보면, 직접적 효과로서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수출유발, 수출대체 등의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양국간의 무역에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먼저 수출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해외에서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본재, 중간재 및 부품 등을 국내(본국)로부터 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출유발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해외현지에서 직접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국내에서 직접생산하여 수출하는 물량이 감소하는 수출대체효과로 인해 본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 특히 해외현지 생산, 판매가 투자국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수출대체효과가 더욱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즉, 본국과 투자 대상국간에 수직적인 생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일본 기업의 경우 해외 이전 시 본국에서 중간재를 조달하는 비중이 4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⁰⁾

그리고 해외직접투자의 간접적인 효과로는 단기적으로 투자 대상국에 고용창출에 따른 소득이 증대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이전에 따른 경제성장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해외직접투자는 투자 대상국에서 모기업에 대한 홍보효과 등이 나타나 모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게 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¹¹⁾.

10) Kawai, M. and Urata, S., *Are Trade and Investment Substitute or Complement: An Empirical Analysis of Japanese Manufacturing Industries, 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in the Pacific Basin: Trade, Investment and Environmental Issu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11) 김유신, “해외투자의 수출입유발효과 분석 및 정책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국수출입은행, 2011, pp.162-164.



자료: 김유신, “해외투자의 수출입유발효과 분석 및 정책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국수출입은행, 2011, p.164.

<그림 2-1>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개요도

<표 2-1>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

분류		내용		본국 영향
직접적 효과	중간재 조달	수출유발 효과	현지법인이 중간재 및 부품을 본국에서 조달	수출증가
		수입대체 효과	국내생산 기반 이전으로 중간재 및 부품 수입 현지 조달	수입감소
	최종재 조달	수출대체 효과	국내 생산후 수출에서 현지 생산 후 판매로 전환	수출감소
		역수입 효과	국내생산 후 공급에서 현지생산후 국내공급으로 전환	수입증가
간접적 효과	투자대상 국내 이미지 제고	투자대상국에 대한 마케팅 역량 및 영업력 확대	수출증가	
	투자대상국 경제 성장	투자대상국의 소득증대	수출증가	
	투자국의 기술이전	투자대상국으로 기술이전에 의한 경제성장, 경쟁력 제고	수출증가 수입증가	

자료 : 양평섭, “한국의 중국 지역별 수출유발효과와 수출결정요인 분석,” 『한중사회과학연구』, 2007, p.3.

수요창출의 효과로는 투자 대상국에서 모국 제조업 제품의 출현이 그 국가로 유사 연관 제품 수출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즉, 해외 자회사 설립에 의한 모기업에 대한 홍보효과와 자회사의 영업확대가 투자 대상국에서 모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게 된다.¹²⁾ 성장을 통한 간접효과는 해외직접투자가 투자 대상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투자 대상국과 본국과의 교역을 증진시키는 효과이다. 투자는 직접적으로 총수요를 창출시켜 경제를 성장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지만, 기술진보와 함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³⁾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는 해외직접투자의 성격이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와 수평결합 생산형태를 띠는 경우에는 대체적 성격을 가지게 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산요소를 획득하기 위한 경우와 수직결합 생산형태인 경우에는 보완적인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시장의 규모와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경우에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국의 수출을 대체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해외생산이 투자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키고 투자국의 생산요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국의 입장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을 대체하여 국내고용을 축소시키며 소득에 음(-)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과 수출을 보완하여 국내고용 증대와 소득증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상존하여 이에 대해 명확한 이론적 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실증분석을 통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12) Lipsey Robert E. and Merle Y. Weiss, "Foreign Production and Exports of Individual Firm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6, No. 2, 1984, pp.304-308.

13) Demurger, S., *Economic Poening and Growth in China*, Development Centre Studies, OECD, 2000.

2. 해외직접투자의 수입효과

해외직접투자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역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발생하게 된다. 해외직접투자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역수입효과와 수입전환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역수입효과는 국내의 생산시설을 이전함으로써 그동안 국내에서 생산한 후 공급했던 소비재나 부품 등의 제품을 투자 대상국에서 생산한 후 다시 모기업에 수출함으로써 본국으로의 수입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위축되는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는 동시에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아웃소싱을 목적으로 하거나 저비용 추구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역수입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많다.¹⁴⁾

둘째, 수입전환효과는 그동안 원·부자재 등 중간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하던 생산공정을 해외에 이전함에 따라 모기업의 수입이 현지 자회사의 현지 조달이나 수입으로 대체할 경우 수입이 전환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본국의 수입이 축소되어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간접적인 측면에서는 투자 대상국의 기술이 향상되고 산업이 발전하여 양국간 교류가 증대되어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¹⁵⁾.

3. 해외직접투자의 단계별 수출입 효과

해외직접투자가 투자 대상국과 본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하게 되나, 그 직접적인 경로 및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투자의 목적 또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수출에 대한 제약이 있을 경우 현지생산을 통해 수출에 대한 제약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현지의 자원을 낮은 가격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14) 이청수, “FDI와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p.60.

15) 양평섭, “한국의 중국 지역별 수출유발효과와 수출결정요인 분석,” 「한중사회과학연구」, 2007, p.3.

<표 2-2> 해외직접투자가 목적별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

투자목적		수출에 미치는 영향	수입에 미치는 영향
수출촉진 (수평적)		최종재의 투자 대상국으로의 수출 감소 중간재의 투자 대상국으로의 수출 증가	투자대상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감소
자원이용 (수직적)	제3국 수출	본국의 제 3 국 수출 감소 자본재 및 중간재의 투자 대상국 수출 증가	투자 대상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감소
	본국 수출	투자 대상국으로의 자본재 및 중간재의 수출 증가	투자 대상국으로부터 최종재 수입 증가(역수입효과) 제 3 국 수입의 대체효과(수입전환효과)

자료 : 이재우, “대 중국 해외직접투자가 대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중국 WTO 가입에 따라 변화를 중심으로,” 『수은해외경제』, 2004, p.12.

현지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직접투자는 수출에 대한 규제가 심한 미개방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자원 및 노동활용 목적의 투자는 투자 대상국에 원자재가 풍부하거나 임금이 낮아 기업의 채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게 된다. 무역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현지생산이 이루어짐으로써 본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수출은 감소하게 되나¹⁶⁾ 현지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및 원·부자재의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한편, 투자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은 감소한다.

투자 대상국의 원·부자재와 노동 등 생산요소를 이용하기 위한 투자는 2 가지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현지생산 후 제3국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제3국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동안 제3국으로 수출이 현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국의 전체적인 수출이 감소하나 투자대상국으로의 수출은 중간재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수입의 경우에는 투자대상국에서 수입됐던 원·부자재의 수요가

16) Frankel, J. A. and Wei, Shang-Jin, *ASEAN in a Regional Perspective*, UC Berkeley Working Paper, c96-074, 1996.

감소하여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본국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생산된 상품이 본국으로 역수입되어 수입은 증가하나 중간재 수출은 증가한다. 그러한 중간재에 대한 현지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무역수지는 악화된다.

그리고 국내 사업부문과도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 내 무역으로 촉발된 국내 기업의 수출과 생산의 확대는 국내 관련 산업을 자극하여 생산과 고용을 늘리는 2차적 효과도 발생한다.¹⁷⁾

둘째, 한국 기업이 합자 또는 합작기업에 비해 독자기업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강력한 통제력을 추구하다 보니 독자기업을 선호하지만 이 경우 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지 유관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합자기업의 경우에도 중국측 파트너나 지방정부의 간섭 등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진출기업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에는 많은 사전 지식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로 인하여 중국의 주력 생산 품목들이 저가 범용 제품들에 한정되어 있어 이러한 제품의 중간투입재로 사용되는 한국의 대 중국 수출 품목들도 낮은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저부가가치 품목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셋째, 현지화를 지향하기보다 한국식 경영방식을 고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이는 상당수 실패기업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한국기업들은 중국식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 없이 한국식 노동 관리를 강요하여 중국 근로자들의 반발을 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지화는 인력, 원·부자재, 자금, 더 나아가 연구개발 등 여러 방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력과 원·부자재 등의 현지화다. 한국 기업의 대 중국 해외직접투자 중에는 중소기업의 투자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현지 투자의 경우 본국에서 파견된 직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는 파견 직원에 대한 고임금 지급에 따른 현지인과의 임금 격차 발생 등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품질, 납기 등을 이유로 필요한 원·부자재를 한국 본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게 된다.

17) 산업자원부,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시사점,” 2005, p.8.

넷째, 한국에 비해 저렴한 생산비용, 적극적인 투자 유인책 등으로 국내 자본의 대 중국 투자 지속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 경제의 자본 축적이 둔화되어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는 국내 투자에 대한 보완 투자의 개념을 넘어서 중국에 대한 대체 투자가 급증할 것이며 특히 생산설비의 중국 이전으로 제조업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자본축적을 둔화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켜 저성장·고실업 구조를 지속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직접투자의 긍정성을 확대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외직접투자의 성격을 바꾸려는 기업 및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대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글로벌 경영목적 하에서 생산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산네트워크의 형성은 본국의 모기업을 생산네트워크의 정점에 두고 각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모기업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핵심기술 및 소재는 국내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수출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단순히 노동력에 의존하는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기술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노동력에 의존하는 기업이 단순히 저임금만을 목적으로 해외진출을 할 경우 기업이 해외에서 생존하는 기간은 단기에 그칠 수도 있다. 그것은 진출 대상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임금 상승이 나타나고 경쟁상대가 나타나 채산성이 다시 낮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투자환경의 개선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대내투자를 유도하여야 만이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방지할 수 있다. 투자환경의 개선은 단순히 조세적인 측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강화,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조,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한 기업간 시너지 확대 등이 필요하다. 결국 고기술·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으로 국내산업을 고도화 하여야 만이 투자국의 국내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다.

끝으로 해외직접투자의 단계별 수출입 효과를 살펴보면,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크기는 투자 후 투자 단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해외직

접투자 초기단계에는 생산시설의 확보를 위한 자본재의 수출이 크게 확대되고, 또한 생산초기에 있어서도 원부자재에 대한 본국 의존도가 높아 중간재 수출도 크게 증가되게 된다. 한편, 생산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수출대체효과나 역수입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아 전반적인 무역수지개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표 2-3> 해외직접투자 단계별 무역에 미치는 효과

구 분	투자초기 단계	생산개시 단계	현지화 진전 단계
수출유발효과 자본재 원부자재	크게 증가 없음	소폭증가 크게증가	거의 증가하지 않음 소폭증가
수출대체효과	없음	소폭증가	크게증가
역수입효과	없음	소폭증가	크게증가
무역수지효과	흑자	흑자폭 확대	흑자감소 또는 적자전환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의 수출입유발효과 분석 및 정책 시사점에 관한 연구,” 2011, p.169.

그러나 생산이 확대되거나 현지화가 이루어지면 현지 법인에서 투자국 및 제3국으로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수출대체효과가 커지고 역수입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현지화를 통한 원부자재의 본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짐에 따라 부품 및 중간재의 본국으로부터의 수출유발 효과도 낮아지게 된다

제3절 해외투자의 무역효과 관련 선행연구 검토

1. 해외문헌

먼저 해외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Markusen and Maskus(2001)¹⁸⁾은 해외직접투자와 무역의 관계가 운송비용과 무역장벽을 고려한 수평적 투자인 경우 대체관계를 보이며, 수직적 투자인 경우 보완적 관계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해외직접투자의 목적이 무역장벽 및 운송비용 등을 회피하여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경우에 현지 생산을 통해 현지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되므로 투자국의 투자유치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와 수출 간에는 대체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투자국과 투자 유치국 간에 생산의 분업관계가 형성될 경우, 즉 투자 유치국에서 생산될 제품생산 과정에 투자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 및 부품 등의 생산요소 수요가 증가할 경우 투자국에서 투자유치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하게 된다. 또한 해외현지의 저렴한 요소비용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국내로 역수입하는 수직적 투자가 일어날 경우에는 수입이 증대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입 간에는 상호 보완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와 무역의 관계는 투자목적에 따라 대체관계가 되기도 하고 보완관계가 되기도 하므로 이들 간의 관계규명은 실증분석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해외직접투자와 무역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는 수입보다는 주로 수출에 집중되어 있다. 해외직접투자와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은 미국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1980년대 초반 이후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초기연구인 Lipsey and Weiss(1981)¹⁹⁾는 1970년대 미국과 13개 주요 수출국의 44개 교역상대국을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분하여 14개 산업을 대상으로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선진국 및 개도국

18) Markusen, James R. and Keith E. Maskus, "General Equilibrium Approaches to the Multinational Firm: A Review of Theory and Evidence," *NBER Working Paper*, 8334, 2001.

19) Lipsey, Robert E. and Merle Y. Weiss, "Foreign Production and Exports in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63, No.4, 1981, pp.488-494.

대부분의 산업에서 해외생산이 증가하면 미국의 수출은 증가하나, 다른 13개 주요 수출국의 수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와 수출 간에는 보완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자료를 이용한 Lipsey and Weiss(1984)²⁰⁾의 연구에서도 해외생산과 수출 간에는 보완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미국의 중간재 수출과 해외 자회사의 생산 간에는 강한 보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Blomstrom, Lipsey and Kulchychy(1988)²¹⁾는 1978년의 스웨덴 자료와 1982년의 미국 자료를 이용하여 해외생산이 수출을 증가시킴을 검증하였고, Yamawaky (1991)²²⁾와 Kawai(1994)²³⁾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와 미국내 일본 기업으로의 수출 간에 보완적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 주었다.

Svensson(1996)²⁴⁾은 1974~1990년 스웨덴 다국적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해외 자회사의 생산이 투자국 모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해외생산 증가는 투자국 모기업의 중간재 수출과 보완관계가 있으나 최종재 수출과는 대체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기존의 연구결과와 달리 전체적인 수출에 음(-)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²⁵⁾

Helpman(1984)²⁶⁾은 해외직접투자가 요소부존도 차이보다는 투자 현지국의 시장 규모와 거래비용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높은 거래비용이나 무역과잉을 회

-
- 20) Lipsey, Robert E. and Merle Y. Weiss, "Foreign Production and Exports in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66, No.2, 1984, pp.304-308.
- 21) Blomstrom, Magnus, Robert E. Lipsey and Ksenia Kulchychy, *U.S. and Swedish Direct Investment and Exports*, in R. Baldwin, ed., *Trade Policy Issues and Empirical Analys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 22) Yamawaki, Hideki, "Exports and Foreign Distributional Activities; Evidence on Japanese Firms in the United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73, No.2, 1991, pp.294-300.
- 23) Kawai, M., "Interactions of Japan's Trade Investment; A Special Emphasis on East Asia," *Discussion Paper Series No. F-39*, Institute of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Tokyo, 1994.
- 24) Svensson, Roger, "Effects of Overseas Production on Home Country Exports; Evidence Based on Swedish Multinationals," *Weltwirtschaftliches Archiv*, Vol.132(2), 1996, pp.304-329.
- 25) 김혁황, 현혜정,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국제통상연구」, 제16권, 제3호, 2011, pp.1-3.
- 26) Helpman, E., "A Simpl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with Multinational Corpor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92, 1984, pp.451-471.

피하기 위한 해외직접투자는 무역을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해외직접투자가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Vernon (1966)²⁷⁾은 제품수명주기모형에 입각하여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생산에서 수출로 다시 직접투자의 단계를 거쳐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제품의 생산거점이 이동하는 관점에서 무역이 대체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Kojima(1985)²⁸⁾는 비교우위설에 입각하여 해외직접투자는 비교열위부문 또는 비교우위부문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무역증대형과 무역감소형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았고 수출 지향적인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국 및 현지국의 수출증대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Fry(1997)²⁹⁾가 46개 신흥시장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경상수지와 독립적인 외국인 직접투자는 수출에 기여하는 효과가 작았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해서는 수출의 경우 계수의 부호가 음(-)이거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입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면 경상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2년부터 1994년까지 미국과 51개국의 직접투자와 무역 간의 관계를 연구한 Hejazi and Safarian(2001)³⁰⁾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는 수출에, 외국인직접투자는 수입에 더 큰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별 분석에 의하면, 제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수출 및 수입 모두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반면 서비스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수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lonigen(2001)³¹⁾은 제품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통적인 헥셔-오린 이론이나 다국적기업 이론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순대체성을 입증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다국적

27) Vernon, R,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46, 1966, pp.191-207.

28) Kojima, K., "Japanese and American Direct Investment in Asia: A Comparative Analysis," *Journal of Economics*, Vol.26, 1985, pp.1-36.

29) Fry, M. J., "Globalization, Financial Market Opening and Foreign Capital Inflows," *4IFG Working Papers*, 97(3), University of Birmingham, 1997.

30) Hejazi, W and A. E. Safarian, "The Complementarity Between U.S. Foreign Direct Investment Stock and Trade," *Atlantic Economic Journal*, Vol.29, No.4, 2001, pp.420-437.

31) 서영경, 이한영,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 「조사통계월보」, 02-10, 한국은행, 2002, pp.23-49.

기업 이론의 단일재화 가정에 부합하게 미국에 진출한 일본의 자동차 부품회사의 자료를 사용하여 자회사 생산과 무역의 상호연관성을 실증하였다. 이에 의하면 대체효과와 보완효과 모두가 존재하고 있으나 대체효과가 보완효과보다 커서 전체적으로 순 대체효과가 발생함을 입증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 차원에서의 순대체성이 실질 세계에서의 순보완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 해당 제품만을 보면 모기업의 해외생산이 현지수출을 감소시키겠지만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모기업의 입장이나 본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여전히 해외생산이 본국에서 현지로 수출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³²⁾

위와 같은 해외문헌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국내문헌을 통하여 한국의 해외직접 투자는 투자 대상국에 수출입 관계를 연구하는 자료를 살펴본다.

2. 한국문헌

해외직접투자와 무역의 관계를 연구한 대표적인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김준동(1994)³³⁾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와 무역의 관계를 산업분류 수준에서 다룬 최초의 연구로써, 1989년~1993년의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의 음식료품, 신발가죽, 섬유 의복, 종이인쇄, 목재가구,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금속기계 등 8개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었음을 밝혔다.

유재원(1996)³⁴⁾은 해외직접투자가 한국의 수출, 수입, 국내생산, 그리고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의 총체적 효과를 산업별로 검증한 대표적인 연구이다.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중력모형을 사용했으나 분석 자료는 회단면 자료로 구성하였다. 그래서 해외직접투자는 양국간의 수출과 수입을 모두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32) 이만석, "한국의 대중국 FDI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p.20-23.

33) 김준동, "글로벌화 시대에서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pp.9-61.

34) 유재원,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무역 및 생산효과," 「국제경제연구」, 제2권, 제2호, 1996, pp.133-160.

1989년부터 1995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이용한 김미아(1998)³⁵⁾의 연구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수출과 수입을 모두 증대시킴으로써 무역촉진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im and Kang(1997)³⁶⁾ 역시 한국과 일본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각국의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수출은 감소하지 않으며, 한국의 경우 해외직접투자는 비용적감의 성격이 강한데 비해,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시장접근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보였다.

서영경·이한영(2002)³⁷⁾은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난 1990년부터 2001년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 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선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무역수지를 악화시키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는 무역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더 큼을 보여주었다.

하병기(2004)³⁸⁾는 해외자회사들의 영업활동자료 분석을 통해서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양평섭(2006)³⁹⁾은 한국의 대 중국 투자변수를 포함하여 대 중국 수출입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제조업에서 한국의 대 중국 투자가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대 중국 투자가 대 중국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었다. 해외투자는 수출을 대체하는 효과보다는 수출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밝혔다⁴⁰⁾.

이영광(2009)⁴¹⁾은 1977년부터 2007년까지 각 제조업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

35) 김미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 「금융학회지」, 제3권, 제1호, 1998, pp.125-143.

36) Kim JuneDong and Kang InSoo, "Outward FDI and Exports: The Case of South Korea and Japan," *Journal of Asian Economics*, Vol.8, No.1, 1997, pp.39-50.

37) 서영경, 이한영,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조사통계월보」, 02-10, 한국은행, 2002, pp.23-49.

38) 하병기, "제조업 해외투자의 평가와 과제: 해외법인의 영업활동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04.

39) 양평섭, 최의현, 남수중, "중국의 중단기 경제발전 전망과 한-중 교역구조 변화 추정," 「현대중국연구」, 제8집, 제1호, 2006, pp.109-140.

40) 이만석, "한국의 대중국 FDI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p.16-19.

41) 이영광, "제조업부문의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투자의 한국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 연구," 「무역학회지」, 제34권, 제4호, 2009, pp.171-199.

용하여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입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향후 투자기업들의 현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한국의 국제수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점차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였다.⁴²⁾

김완중(2012)⁴³⁾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동남아 6개국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와 무역의 관계를 산업내 무역과 산업간 무역으로 분류하여, 일반화된 도구변수 추정치인 GM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의 동남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적인 교역을 증가시키지는 못했으나, 동남아에 대한 산업내 무역을 증가시킨 반면, 산업간 무역은 오히려 축소시킨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동남아에 대한 자본재 및 원자재 교역을 유발시켜 수직적 산업내 무역을 확대시킨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양국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전체적인 교역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내 무역은 양자간 경제규모와 교역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한국과 경제발전 수준이 유사한 국가들과 교역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이 해외직접투자가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주로 한정된 지역이나 특정 산업에 대한 연구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액과 대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연구는 역시 필요하다.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의 경우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한 실증분석으로 연구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과 해외직접투자를 지속적으로 이루고 있는 전 세계 36개국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42) 김혁황, 현혜정,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국제통상연구」 제16권, 제3호, 2011, p.3.

43) 김완중, "한국의 동남아에 대한 직접투자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동남아시아연구」, 제22권, 제1호, 2012, pp.249-275.

제3장 한국의 對APEC 무역구조 및 투자현황

제1절 세계 해외투자 현황

1. 세계 해외투자 개황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2014년도 ‘세계투자보고(World Investment Report)’에 따르면 2013년에 각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1조 45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UNCTAD는 보고서에서 2014년도 해외투자는 전년 대비 12.5%가 증가한 1조 6천 200억 달러로 전망하였고, 경제회복중인 국가나, 여러 사기업 등의 프로젝트 활동자금(Warchests)을 유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옛 소련과 동부 유럽 등의 시장경제 이행국에 대한 투자가 점점 증가한다고 밝혔다.

UNCTAD는 2014년도 해외직접투자액을 1조 6천200억 달러, 2015년도 1조 7500억 달러, 2016년도 1조 8500억 달러로 예측하였다. 주로 선진국이 견인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연속 순조롭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주로 국경을 초월한 흡수합병(M&A=Mergers and Acquisitions)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확대 등의 소요되는 자금으로 구성되고 해외직접투자지표는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의 촉진지표로 여긴다고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의 경우에는, 2조 달러가 감소되고 2009년도에는 1조 2천억 달러로 급감했다. 그러나 2014년 1~4월 사이에 국제간 ‘흡수합병’액은 500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2013년도 동기대비에는 2배 정도 증가하였다. 2014년의 경우에는 10개 정도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전통적인 패턴’으로 회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전 세계 잠재 성장률은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인 유럽연합(EU)은 아시아 지역을 바짝 뒤따르고 있었다. 2013년 경우에는 자연재해와 경제위기를 때문에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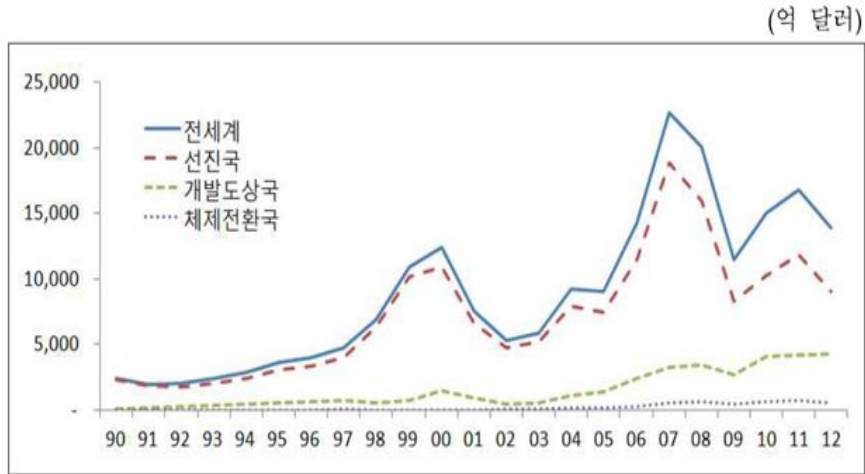
또한 이 보고서는 대체적으로 상승세로 전망하였지만 우크라이나와 이라크 정세 등 국가는 ‘지역 간 분쟁,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을 테니까 외국인 직접투자가 상승세로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국으로 가장 잠재력이 있는 국가인 미국은 2013년도 1880억 달러로 1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투자금액은 2위의 지위를 가진 중국의 2배정도 기록했다. 특히 2013년에 미국의 경우에는 셰일가스(Shale Gas) 등 석유와 가스 분야에 흡수합병이 80% 이상 증가되고 미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금액이 크게 증가되었다. 저렴한 셰일 가스 덕분에 미국은 해외직접투자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자원투자가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프리카에 더 많이 투자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프리카 지역은 워래 낙후된 지역으로써 인프라와 같은 기본적인 투자가 엄청나게 필요하여서 해외직접투자는 증가세로 전망하고 있다. 2013년에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금액은 10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가 증가하였고 해외직접투자금액이 중국으로 유입된 투자금액을 초과하였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고, 2~3년 내에 1240억 달러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2.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분석

2012년 기준 전세계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17%가 감소한 1조 3,910억 달러 기록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2010년~2011년에 회복세로 보이였지만,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의 재정위기로 인해 세계 해외직접투자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서 2012년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2012년에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핵심사업(Core Business)에 집중하며, 자회사들을 매각하는 자산구조조정, 투자회수 등을 통해 해외직접투자를 재조정함을 이유로써 해외직접투자가 감소세로 나타났다.



<그림 3-1>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 추이

2010년 이후 회복세로 보이던 선진국의 해외직접투자유출은 유럽 주요국의 재정 위기를 때문에 2012년에 다시 감소세로 되어서 전년대비 23.1%가 감소한 9,09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금융위기였던 2008년에 2007년보다 해외직접투자가 거대한 유출액을 나타내었고, 2009년 잠시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2010년 바로 회복세로 보였고, 그 후에 2012년까지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개발도상국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이 증가추세로 나타난 것은 아시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때문이었다. 특히 중국은 금융위기 이후로도 투자가 꾸준히 상승세로 증가하였다. 2008년에 체제 전환국의 해외직접투자금액도 2007년보다 상승세로 증가하였고, 2009년에 잠시 감소세로 감소되었고, 2010년부터 회복세가 나타났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전년대비 24%가 감소되었다.⁴⁴⁾

44) 한국수출입은행, “2012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전망,” 「FDI Research」, Vol. 2013-03, 산업 투자조사실 해외직접투자분석팀, 2013, pp.2-16.

3.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동향

가. 해외직접투자 유출 동향

1) 선진국

2012년 전년대비 23.1%가 감소한 9,09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세계에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은 감소세로 주도되었다. 선진국의 유출액은 금융위기 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1년말부터 시작된 유로존 위기 및 세계 경기침체 여파에 때문에 다국적 기업의 자산구조조정 및 투자금회수가 이어서 '2012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은 대부분 선진국으로 유입되었다. '2010년~2011년에 투자회복세를 주도하던 선진국인 미국은 '2012년 유럽의 경기침체로 인해 유출액이 전년대비 17%가 감소한 3,289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유럽의 유출액은 '2012년에 전년대비 37%가 감소하며 '2007년의 29%가 줄어든 것은 전세계의 투자가 제일 크게 위축된 것이었다, 유럽지역의 경제상황으로 인해 향후 투자국의 투자결정에 큰 변수로 될 수 있다.

유럽국가들 중에 '2012년에 대규모 투자감소가 일어난 국가는 벨기, 네덜란드, 스페인 순이었으며, 투자 철수 등으로 유출액이 마이너스로 된 국가는 그리스, 네덜란드, 스페인이었다. 한편, 선진국의 전반적인 투자위축세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일본의 유출액은 '2012년에 전년대비 각각 28%, 14%가 증가하였고, 아일랜드는 전년 대비 7억불에서 6억불로 감소하였으며, 유출액의 70%가 수익성 재투자하였다.

2) 개발도상국

해외직접투자가 세계적으로 침체경향에도 불구하고 중국, 멕시코, 칠레가 계속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개발도상국은 '2012년에 유출액은 전년대비 1%가 증가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31%에 달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의 유출액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고, 전년의 3배 수준인 143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아시아, 중남미 지역의 유

출액은 각각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3,082억 달러, 1,03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개발도상국 유출액의 대부분은 아시아 국가⁴⁵⁾에서 유출된 것이고, 이 중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는 중국, 홍콩, 한국이다. 이 3 국가의 투자액이 아시아 지역의 총유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이며, 개발도상국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47%가 된다. 중국의 유출액은 서브프라임 사태가 시작된 2007년을 제외하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배 가까이 성장하여 왔으며, 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성장세로 이어가 '2012년에 84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투자유출국으로 되었다. 멕시코와 칠레는 풍부한 현금 및 포화된 내국시장에 기초로 선진국의 M&A 유출액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유럽 금융회사의 M&A상황이 다 심해졌다.

3) 체제전환국

체제전환국의 유출액은 체제전환국 투자유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유출액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24%가 감소한 55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최대 투자유출국은 미국, 일본, 중국, 홍콩, 영국 순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유출액을 기록한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홍콩, 영국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전년대비 유출액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유출액은 규모상 압도적으로 되었고, 계속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일본은 '2010년에 9위까지 떨어졌지만 '2012년 유출액이 전년대비 14% 증가하며, '2011년의 2위 자리로 다시 올라왔다.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보이는 곳은 중국이며,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져오니, '2012년에는 3위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한편, 한국의 투자규모도 꾸준히 커지고 있으니, '2012년 세계 13위로 기록하였다'.

45) UNCTAD WIR에서 일본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므로, 개발도상국에서 아시아를 언급할 때는 일본을 제외한 전체 아시아를 의미함.

<표 3-1> 전세계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 추이

단위 : 억달러)

지역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세계	22,720	20,053	11,498	15,049	16,780	13,910
선진국	18,904	16,007	8,280	10,298	11,831	9,094
유럽	13,295	10,436	4,298	5,980	6,092	3,850
북미	4,581	3,876	3,066	3,391	4,465	3,828
기타	1,028	1,696	917	927	1,274	1,416
개발도상국	3,300	3,440	2,734	4,132	4,221	4,261
아프리카	111	101	63	93	54	143
아시아	2,385	2,351	2,115	2,840	3,106	3,082
중남미	803	978	555	1,192	1,052	1,030
대양주	2	11	1	7	9	6
체제전환국	516	606	484	619	729	555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2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전망,” 『FDI Research』, Vol. 2013-03, 산업투자조사실 해외직접투자분석팀, 2013, p.5.

나. 해외직접투자 유입 동향

1) 선진국

미국, 벨기에 등 선진국들은 전세계 유입액 감소세로 보이고 전년대비 32%가 감소한 5,607억 달러로 기록하였으며, 선진국의 유입액은 세계적으로 '2011년의 50%에서 '2012년에 42%로 하락하였다. 계속 최대 투자유입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서브프라임사태로 인해 '2008년에 유입액이 전년대비 42%가 증가하였지만 '2009년에는 전년대비 53%가 급락되었다. 금융위기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후 미국의 유입액은 '2010년부터 회복세로 전환되어도 '2008년에 그 정점수준으로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2012년 유입액이 전년대비 26% 감소하였으며, 미국 기업의 M&A 이기 때문에 투자는 전년대비 780억 달러가 감소하였다.

금융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유럽은 '2012년 유입액이 전년대비 42%가

감소하며 '2008년 유입액의 48%인 2,756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유럽지역에 유입액의 감소율은 전세계 유입액 중에서 66%에 달하였다. 유입액은 크게 감소한 국가는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순이다. 벨기에의 감소한 유입액은 전유럽 내에 다국적기업 자금이동의 주요 원인으로 되었으니, 독일 및 룩셈부르크에도 투자가 많이 축소되었다.

한편, 아일랜드는 긴축재정정책을 실시하였으니, 경제가 회복세로 보이였다. 다국적기업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아일랜드의 유입액은 전년대비 15%가 증가하였고, 다국적기업 재투자수익이 증가⁴⁶⁾함에 따라 영국의 유입액은 전년대비 22%가 증가하며, 다른 유럽국가들의 유입액은 감소세로 보이였다.

2) 개발도상국

해외직접투자가 세계적으로 위축된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수익이 높은 투자대상이 되었다. '2012년에 전년대비 4%가 감소(7,028억 달러)하였고, 투자유입액도 선진국을 초과하고 전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의 52%로 차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2년 아시아에 대한 투자유입액은 전년대비 6.7%가 감소한 4,068억 달러로 기록하였고, 홍콩, 인도가 각 전년대비 215억 달러(22.4%), 106억 달러(29.4%)가 크게 감소되었고 이 두 국가의 감소율이 아시아 지역의 총감소율의 큰 폭을 차지하였다. 인도는 낮은 성장률과 높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투자유입이 급감하였으며, 최대 투자유입국인 중국은 수년간 지속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섬유·신발제조 등 저임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국가로 이전하였다.

중남미의 투자유입은 전년대비 2%가 감소한 2,43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카리브해를 제외하면, 오히려 전년대비 4.3%가 증가하였다. 칠레는 금·동 채굴업 등 자원목적으로 유입된 투자금액은 전년대비 32.2%가 증가하였고, 브라질은 세계 4위의 자동차 시장으로써 자동차와 관련된 환경규제법 및 국산부품 의무사용비율을 강화하

46) 영국 가디언지(the guardian), Foreign investment in UK rise despite slump across rest of Europe, 2013.6.26일자.

기 위해 자동차부품과 설비투자가 전년대비 2.1%가 감소하는 반면, 멕시코가 전년 대비 41%가 감소한 127억불이었고, 케이만군도가 전년대비 79%가 감소한 42억불로 기록하였다. 아프리카는 천연자원 탐사투자 및 중국에서 유입된 거대한 투자액으로 인해 전년대비 5%가 상승한 500억 달러로 기록하였다.

3) 체제전환국

러시아, 벨라루스의 유입액은 전년대비 9%가 감소한 874억 달러로 기록하였다. 체제전환국의 유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러시아가 전년대비 6.7%가 감소하였고, 독립국가연합(CIS)의 유입액은 6.5%가 감소하였다.

<표 3-2> 전세계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추이

(단위 : 억달러)

지역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세계	20,027	18,164	12,165	14,085	16,515	13,509
선진국	13,199	10,265	6,134	6,964	8,200	5,607
유럽	9,065	5,718	4,048	4,292	4,729	2,756
북미	3,328	3,679	1,663	2,270	2,683	2,130
기타	806	868	423	402	788	721
개발도상국	5,894	6,684	5,303	6,371	7,352	7,028
아프리카	513	589	530	436	476	500
아시아	3,649	3,962	3,247	4,007	4,362	4,068
중남미	1,719	2,107	1,502	1,899	2,494	2,439
대양주	13	27	25	29	20	22
체제전환국	934	1,214	727	751	963	874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2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전망,” 「FDI Research」, Vol. 2013-03, 산업투자조사실 해외직접투자분석팀, 2013, p.9.

제2절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투자유치 현황

1. 해외직접투자 현황

가. 지역·국가별 동향

한국의 지역별 투자는 아시아, 북미, 유럽의 순이며, 상위 3대 지역 투자비중은 전체의 77.2%를 차지하며, 2009년에 88.8%에서 지속적으로 감소중이고, 투자지역의 다변화가 진행중이다. 아시아와 유럽은 투자가 증가하는 반면에, 북미는 2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⁴⁷⁾

<표 3-3> 한국의 최근 5년간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아시아	6,794	10,139	11,218	10,877	11,172	2.7%
북미	6,005	4,630	7,300	5,051	3,867	△23.4%
유럽	5,338	6,143	4,355	3,405	3,524	3.5%
대양주	549	779	1,542	2,348	2,589	10.3%
중남미	1,039	2,138	2,385	2,703	2,248	△16.8%
중동	322	349	419	370	482	30.4%
아프리카	374	291	372	365	172	△52.8%
합계	20,420	24,468	27,591	25,119	24,054	△4.2%
상위3대지역 비중	88.8%	85.5%	82.9%	77.0%	77.2%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3년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 산업투자조사실 해외직접투자분석팀, 2014, p.8.

주 :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이하 동일)

47) 한국수출입은행, “2013년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 산업투자조사실 해외직접투자분석팀, 2014, pp.8-12.

2013년에 투자금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규법인수는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아시아 지역에 신규법인수의 비중은 68.7%로 차지하는 반면, 투자금액의 비중은 46.4%를 차지하였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는 베트남 등 아세안신흥국 및 최대 투자국인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74.4%로 높은 가운데, 투자금액은 상위 5대 국가 중 홍콩을 제외하고 2012년보다 모두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증가하는 반면, 광업과 전문서비스업은 투자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표 3-4> 한국의 최근 5년간 아시아 주요국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중국	2,201	3,660	3,686	3,609	5,046	39.8%
베트남	609	855	1,048	965	1,115	15.6%
홍콩	1,567	1,286	1,631	1,581	800	△49.4%
일본	377	321	252	646	691	7.1%
인도	241	198	452	311	541	73.6%
아세안 신흥국	1,852	3,999	3,882	4,103	3,261	△20.5%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3년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 산업투자조사실 해외직접투자분석팀, 2014, p.9.

북미지역에 대한 투자는 최근 광업투자 급감에 따라 투자금액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였지만, 북미는 여전히 아시아에 있는 한국의 제2 주요 투자대상이다. 최대 업종인 광업이 2011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대폭 증가하였다.

한편, 유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영국은 투자가 감소하게 되었고, 네덜란드와 독일에 대한 투자가 온 지역의 증가세로 보였다. 대유럽 투자는 금융 및 보험

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2012년 1위를 차지하였던 전문서비스업이 대폭 감소하였다.

대양주 지역에 대한 투자현황에 호주는 한국의 광업투자국으로, 최근 광업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2년~2013년에 한국의 제3위 투자국으로 유지하였다. 주요 업종별로는 2013년에 북미를 제치고 제1위 광업투자지역으로 되었으며, 그 다음에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금융 및 보험업의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나. 업종별 동향

한국의 투자 상위 3대 업종인 제조업, 광업, 금융 및 보험업의 비중이 71.5%를 차지하는 가운데, 광업은 24.9% 감소를 기록하며, 2011년 이래로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표 3-5> 한국의 최근 5년간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제조업	4,621	7,241	8,987	7,923	9,517	20.1%
광업	5,449	7,342	7,585	7,273	5,459	△24.9%
금융 및 보험업	2,085	3,272	3,400	1,390	2,219	59.6%
도매 및 소매업	1,703	1,254	2,163	1,541	1,861	20.8%
부동산업 및 임대업	2,363	1,593	678	1,052	1,610	53.0%
전문서비스업	2,130	1,622	2,381	2,961	1,037	△65.0%
합 계	20,420	24,468	27,591	25,119	24,054	△4.2%
상위3대업종 비중	59.5%	73.0%	72.4%	66.0%	71.5%	

주요 업종 중 광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의 신규법인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제

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평균대비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였다.

제조업은 2009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 1988년 이래로 전체 업종 중 1위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의 주요 투자국은 전통적 최대투자국인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 가운데, 브라질, 미국 등 미주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중국 제조업 투자 급증은 삼성전자 서안 반도체 공장 등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하 ‘전자제품 제조업’) 투자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표 3-6> 한국의 최근 5년간 제조업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중국	1,725	2,777	2,835	2,542	4,488	76.6%
베트남	311	464	523	527	742	40.8%
인도	216	154	421	234	495	111.0%
브라질	6	133	919	639	463	△27.6%
미국	711	366	527	825	448	△45.8%
필리핀	26	151	88	892	415	△53.5%
독일	173	45	256	27	250	843.9%
홍콩	225	193	88	87	236	170.2%
인도네시아	74	189	883	505	225	△55.4%
싱가포르	35	162	268	16	188	1,057.2%

광업은 해외자원개발 촉진 정책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 증가세가 2011년 이후로 점차 감소하면서 2013년에 24.9% 감소를 기록하였다. 광업의 주요 투자국으로는 2011년부터 투자가 급증하였던 호주 및 미국은 2012년 대비 큰 폭 감소하였으며, 주요 투자국이었던 캐나다는 2009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다.

한편 금융 및 보험업은 주요 투자국인 네덜란드가 2012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1위를 기록한 반면, 2010년 이후에 최상위 투자국의 위치를 차지한 미국이 급감하여 3위를 차지하였다. 도매 및 소매업은 상위 투자국인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2012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 화장품 및 건강식품 기업 M&A 투자로 일본이 2012년부터 주요 투자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 기업규모 및 투자규모별 동향

대기업의 투자금액은 2012년 대비 9.4%가 감소하며 대기업 투자 비중 또한 2012년 84.4%에서 2013년 79.8%로 다소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비중은 2012년 11.0%에서 2013년 11.3%로 소폭 증가하였다.

<표 3-7> 한국의 최근 5년간 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대기업	17,043	20,795	22,908	21,192	19,198	△9.4%
중소기업	2,818	2,988	3,511	2,765	2,722	△1.6%
개인기업	46	62	49	37	37	1.0%
개 인	295	392	324	410	295	△28.2%
기 타 (비영리단체 등)	217	231	798	714	1,802	152.4%
합 계	20,420	24,468	27,591	25,119	24,054	△4.2%

대기업이 투자한 신규법인수는 2012년 대비 8.2%가 증가하고 그 비중(15.2%)은 2013년(15.5%)과 비슷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12년에 42.3%에서 2013년 46.2%로 증가하였다.

투자규모별로는 2013년 1,000만 달러 초과 투자 비중은 전체의 72.3%로 2012년

의 71.4%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1억 달러 초과 투자는 2012년의 29.5%에서 2013년의 28.0%로 축소되었다.

<표 3-8> 한국의 최근 5년간 투자규모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달러)

	2009	2010	2011	2012	2013	
500만달러 이하	4,637	5,134	5,116	4,885	4,825	△1.2%
500만달러~ 1,000만달러	1,489	1,667	2,332	2,289	1,827	△20.2%
1,000만달러~ 5,000만달러	4,391	4,567	6,741	6,496	6,625	2.0%
5,000만달러~ 1억달러	2,101	2,044	3,778	4,044	4,033	△0.3%
1억달러 초과	7,801	11,054	9,622	7,404	6,741	△8.9%
합 계	20,420	24,468	27,591	25,119	24,054	△4.2%

한편 최근 5년 연속 투자자의 지분보유율 100%인 투자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해 온 한편, 2013년 중 지분을 50% 미만 투자는 광업이, 50% 이상~100% 미만의 투자는 제조업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방법으로는 2013년 증권 취득 방식의 투자가 2012년에 비해 4.3%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체의 8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채권 취득 방식의 투자가 최근 5년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현지법인을 신규 설립하는 그린필드형 투자의 비중이 2012년 75.2% 에서 2013년 79.9%로 증가하였으며, 기존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M&A형 투자는 최근 5년간 그 비중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업종별 기존법인 지분 인수(M&A형) 해외투자는 제조업과 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2011년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2. 외국인투자유치 현황

가. 업종별 현황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실적은 경제규모를 고려하여 기타 경쟁 대상국과 비교할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 기준에 한국의 외국인 투자유치금액은 도착금액 기준으로 9,802백만달러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275백만달러로 전체 투자유치금액의 43.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서비스업이 5,489백만달러로 약 60%를 차지하였다.⁴⁸⁾ 한편, 2014년 3분기 외국인 투자유치실적은 9,773백만달러로 동기 대비 50.1%의 증가세가 나타났었다.

<표 3-9> 한국의 업종별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13					201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합 계	증감률
제조업	563	1,959	686	1,067	4,275	2,511	856	578	3,944	23.0
(부품소재)	522	970	588	949	3,029	2,329	627	352	3,308	59.1
서비스업	905	1,167	1,195	2,223	5,489	1,216	2,882	1,691	5,789	77.2
기 타	26	3	7	2	38	33	1	6	40	10.0
전 체	1,493	3,129	1,888	3,292	9,802	3,760	3,739	2,275	9,773	50.1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014, p.1.

주 : 기타는 1차 산업 및 전기·가스·수도·건설을 포함.

48)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014, p.1.

세부 업종별로는 제조업분야에서는 운송용기계(1,237백만달러)가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하였으며, 비광물금속(1,026백만달러), 화공(807백만달러), 전기전자(452백만달러)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서비스업분야에서는 금융보험업(2,925백만달러)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하였으며, 부동산임대(2,550백만달러), 비즈니스서비스업(2,514백만달러), 음식숙박(937백만달러), 도소매업(657백만달러)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나. 국가별 현황

국가별로는 2013년 기준으로 EU지역이 3,528백만달러로 전체 금액의 36.5%를 차지하여 1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 2,882백만달러, 미국 1,599백만달러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중화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유치는 2014년 3분기 기준으로 1,716백만달러로 동기 대비 193.9%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0> 한국의 국가별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3					201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합계	증감률
미 국	94	946	166	393	1,599	75	1,167	194	1,436	19.1
일 본	713	729	765	675	2,882	781	422	557	1,759	-20.3
E U	358	1,009	680	1,481	3,528	2,217	1,028	726	3,971	94.0
중 화	253	109	221	284	867	421	621	674	1,716	193.9
중 국	63	29	35	97	224	56	121	53	230	81.3
기 타	75	336	56	459	925	267	501	124	892	91.2
전 체	1,493	3,129	1,888	3,292	9,802	3,760	3,739	2,275	9,773	50.1

다. 대상별 현황

대상별로는 2013년 기준으로 Green Field형이 5,683백만달러로 전체 금액의 57.9%를 차지하고 있으며, M&A형이 4,119백만달러로 전체 금액의 42.0%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1> 한국의 대상별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13					201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합계	증감률
M&A형	434	1,711	438	1,536	4,119	2,287	1,909	576	4,772	84.7
Green Field형	1,060	1,418	1,449	1,756	5,683	1,473	1,829	1,699	5,001	27.4
전 체	1,493	3,129	1,888	3,292	9,802	3,760	3,739	2,275	9,773	50.1

3.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투자유치의 문제점

선진국들은 해외직접투자 역사가 오래되고 현지법인의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것에 비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00년대 들어 양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였으나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제조업, 광업 등 특정 업종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나, 연관 산업에 대한 투자는 미흡하므로 투자업종의 다변화 및 현지화 강화가 필요하다. 생산뿐만 아니라 R&D, 현지 유통망, 서비스 등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경영전반을 현지화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수출촉진·저임활용에서 벗어나고 현지시장진출을 목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지법인의 현지화 및 독립경영추세가 심화되고 있는

바, 국내 수준의 지원에 머물기보다는 현지중심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국내 본사보다 해외 현지법인에서의 매출규모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는 등 현지시장을 목표로 한 해외직접투자의 현지화를 가속시키고, 우량한 현지법인의 신용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기업들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진출하여 지역별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형태의 해외직접투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동반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의 '2012년 국경간 M&A 투자비중인 25%가 전세계 M&A 비중인 33.5%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가별로 비교할 때에도 중국(66.1%), 일본(45.5%), 미국(43.7%)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해외 M&A는 유출액 규모면에서도 55억 달러 수준으로, 중국(371억 달러)과 일본(357억 달러)에 크게 뒤지며, 브라질(74억 달러), 멕시코(58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현재 전세계의 경제 불확실성 하에서 각국마다 저평가된 사기업과 국영기업 매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술 및 영업력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M&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필요가 있었다.⁴⁹⁾

제3절 한국의 對APEC 무역구조 및 투자 현황

1. 한국의 對APEC 무역구조

가. 부문별 수출입 추이

2013년 기준 한국의 對APEC 전체상품 수출실적은 328,831백만달러로 전세계 수출의 72.9%를 차지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對APEC 제조업수출은 68.3%를 점하고 있으며 비제조업 수출은 80.7%에 다다르고 있다. 한편, 수입도 전 세계 수입의 71.9%에 달하는 299,116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49) 한국수출입은행, “2012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전망,” 「FDI Research」, Vol. 2013-03, 산업투자조사실 해외직접투자분석팀, 2013, p.24.

<표 3-12> 한국의 對APEC 부문별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전체상품 수출 (점유율)	90,201 (72.1)	125,483 (72.8)	200398 (70.5)	320,871 (68.8)	387,725 (69.8)	396,393 (72.4)	407,961 (72.9)
제조업 수출 (점유율)	76,670 (67.0)	109,931 (71.0)	177,165 (68.6)	274,456 (66.7)	319,364 (67.4)	311,470 (67.3)	328,831 (68.3)
비제조업 수출 (점유율)	7,093 (86.7)	14,509 (92.0)	22933 (88.9)	43565 (84.5)	65,120 (83.1)	66,917 (81.9)	62146 (80.7)
전체상품 수입 (점유율)	95,849 (70.9)	109,594 (68.3)	172,110 (65.9)	275,824 (64.9)	321,698 (61.3)	304,229 (58.6)	299,116 (58.0)
제조업 수입 (점유율)	66,504 (73.8)	80,143 (81.4)	124,824 (78.8)	189,189 (78.9)	210,250 (78.5)	189,822 (73.7)	189,239 (71.9)
비제조업 수입 (점유율)	25,277 (59.9)	28,195 (47.2)	46,624 (45.8)	85,336 (46.5)	110,026 (43.2)	101,451 (39.0)	96,925 (38.6)

자료 : APEC Bilateral Linkages Database(statistics.apec.org).

주 : 점유율은 한국의 전세계시장 수출입액에서 APEC의 점유율.

나. APEC 국가별 상품무역 추이

APEC 국가별로는 중국과의 교역액(수출+수입)이 228,920백만달러로 전체 對 APEC 교역액의 32.4%를 차지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14.7%), 일본(13.4%), 싱가포르(4.6%)의 순을 나타내고 있다.

<표 3-13> 한국의 APEC 회원국별 상품무역(Total Merchandis)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00		2005		2010		2013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World	172,267	160,479	284,418	261,236	466,381	425,208	559,619	515,573
APEC (점유율)	125,483 (72.8)	109,594 (68.3)	200,398 (70.5)	172,110 (65.9)	320,871 (68.8)	275,824 (64.9)	407,961 (72.9)	299,116 (58.0)
China	18,455	12,799	61,915	38,648	116,838	71,573	145,869	83,051
United States	37,806	29,286	41,499	30,787	49,991	40,588	62,327	41,762
Japan	20,466	31,827	24,027	48,403	28,176	64,296	34,662	60,029
Singapore	5,648	3,723	7,407	5,318	15,244	7,849	22,289	10,369
Australia	2,606	5,958	3,812	9,859	6,642	20,455	9,563	20,784
Hong Kong, China	10,708	1,261	15,531	2,043	25,294	1,946	27,756	1,929
Viet Nam	1,686	322	3,432	694	9,652	3,331	21,088	7,175
Chinese Taipei	8,988	3,908	13,239	5,877	16,059	10,682	15,768	12,077
Indonesia	3,504	5,287	5,046	8,184	8,897	13,986	11,568	13,190
Russia	788	2,058	3,864	3,937	7,760	9,899	11,149	11,495
Malaysia	3,515	4,878	4,608	6,012	6,115	9,531	8,588	11,096
Thailand	2,015	1,631	3,381	2,689	6,460	4,169	8,064	5,231
The Philippines	3,360	1,815	3,220	2,316	5,838	3,488	8,783	3,706
Mexico	2,391	378	3,789	460	8,846	1,521	9,727	2,300
Canada	2,427	2,108	3,446	2,604	4,102	4,351	5,203	4,716
Chile	593	902	1,151	2,279	2,947	4,221	2,458	4,658
Peru	213	143	282	249	944	1,039	1,440	1,983
New Zealand	286	702	670	891	918	1,176	1,491	1,395
Brunei Darussalam	16	492	61	787	65	1,522	102	1,935
Papua New Guinea	12	117	17	72	83	201	64	233

자료 : APEC Bilateral Linkages Database(statistics.apec.org).

주 : 점유율은 한국의 전세계시장 수출입액에서 APEC의 점유율.

다. 국가별 상품무역수지 추이

한편, 2013년에 상품무역수지는 2000년보다 15,889백만달러에서 108,845백만달러로 흑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14> 한국의 APEC 회원국별 상품무역수지 추이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00	2005	2010	2013
	무역수지	무역수지	무역수지	무역수지
World	11,788	23,182	41,173	44,046
APEC	15,889	28,288	45,047	108,845
China	5,656	23,267	45,265	62,818
Hong Kong, China	9,447	13,488	23,348	25,827
United States	8,520	10,712	9,403	20,565
Viet Nam	1,364	2,738	6,321	13,913
Singapore	1,925	2,089	7,395	11,920
Mexico	2,013	3,329	7,325	7,427
The Philippines	1,545	904	2,350	5,077
Chinese Taipei	5,080	7,362	5,377	3,691
Thailand	384	692	2,291	2,833
Canada	319	842	-249	487
New Zealand	-416	-221	-258	96
Papua New Guinea	-105	-55	-118	-169
Russia	-1,270	-73	-2,139	-346
Peru	70	33	-95	-543
Indonesia	-1,783	-3,138	-5,089	-1,622
Brunei Darussalam	-476	-726	-1,457	-1,833
Chile	-309	-1,128	-1,274	-2,200
Malaysia	-1,363	-1,404	-3,416	-2,508
Australia	-3,352	-6,047	-13,813	-11,221
Japan	-11,361	-24,376	-36,120	-25,367

자료 : APEC Bilateral Linkages Database(statistics.apec.org).

APEC 국가별로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국(62,818백만달러)이며, 홍콩(25,8278백만달러), 미국(20,565백만달러) 순을 보이고 있으며, 베트남, 싱가포르, 멕시코, 필리핀 대만, 캐나다, 뉴질랜드의 순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APEC 국가 중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적자국(-25,367백만달러)으로 나타났으며, 호주, 말레이시아, 칠레 등이 적자국으로 나타났다.

2. 한국의 對APEC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유치 현황

가. 해외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투자 추이

2013년 기준에 한국의 對APEC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APEC 지역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의 6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부문 FDI 실적은 7,201백만달러로 한국의 전체 제조업부문 FDI의 76.2%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5> 한국의 對APEC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유치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FDI Flows Outward(전체) (점유율)	2,361 (73.2)	3,253 (61.6)	5,737 (78.3)	15,099 (61.3)	20,356 (70.2)	19,401 (69.2)	19,823 (67.2)
FDI Flows Outward(제조업) (점유율)	1,605 (78.0)	1,486 (91.4)	3,132 (82.8)	5,902 (84.4)	6,027 (67.7)	6,041 (74.5)	7,201 (76.2)
FDI Flows Inward(전체) (점유율)	1,464 (74.3)	8,137 (53.3)	6,368 (55.0)	6,931 (53.0)	7,474 (54.7)	12,957 (79.6)	8,778 (60.3)
FDI Flows Inward(제조업)	818	2,078	2,008	2,515	3,406	4,655	2,761
Portfolio Investment			23,619	69,937	61,894	78,295	
Equity Securities (주식투자)			3,390	52,711	46,322	60,065	
Debt Securities (채권투자)			20,229	17,227	15,572	18,229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시스템(keri.koreaexim.go.kr).

APEC Bilateral Linkages Database(statistics.apec.org).

주 : 점유율은 APEC/World*100

한편, 2013년 기준에 APEC 국가로부터의 외국인투자유치는 8,778백만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유치의 60.3%를 차지하였다.

나. APEC 회원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2013년 기준 한국의 對APEC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APEC 지역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의 6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부문 FDI 실적은 7,201백만달러로 한국의 전체 제조업부문 FDI의 76.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APEC 국가로부터의 외국인투자유치는 2013년 기준 8,778백만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유치의 60.3%를 차지하였다.

APEC 국가별로는 한국의 최대 제조업부문 FDI 대상국가는 중국으로 2013년 기준 투자금액은 4,509백만달러로 對APEC 전체 투자의 무려 62.6%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베트남 10.5%, 미국 6.2%, 태국 5.8%, 인도네시아 3.4% 일본 3.0%의 순을 기록하였다.

<표 3-16> 한국의 APEC 회원국별 제조업부문 해외직접투자(FDI Flow Outward)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APEC	1,605 (78.0)	1,486 (91.4)	3,132 (82.8)	5,902 (84.4)	6,027 (67.7)	6,041 (74.5)	7,201 (76.2)
China	713.7	584.9	2324.8	2765.9	2850.2	2554.2	4509.0
Viet Nam	154.3	34.7	184.3	468.3	515.3	520.6	755.0
United States	216.9	563.8	229.1	363.3	554.6	958.7	448.6
Thailand	35.1	60.8	21.4	150.9	85.7	890.0	414.9
Indonesia	42.6	35.7	107.2	169.4	91.9	87.9	245.5
Japan	187.9	73.7	77.4	176.8	856.8	486.0	218.6
Mexico	109.0	2.9	6.0	1352.2	56.8	51.9	179.7
New Zealand	38.2	10.6	25.7	47.2	50.8	127.8	98.3
Malaysia	59.8	8.3	13.0	33.7	40.3	162.5	93.7
Canada	1.6	8.5	2.0	6.0	40.0	43.2	89.3
Chinese Taipei	20.5	19.5	44.8	33.3	527.9	40.6	51.9
Russia	9.7	2.5	17.7	300.4	38.8	59.8	42.8
Singapore	4.8	51.2	22.6	19.9	257.6	47.7	22.4
Hong Kong, China	0.3	3.8	11.5	7.8	7.9	4.2	13.0
Papua New Guinea	0.6	0.7	0.5	-	0.1	0.1	8.7
Australia	9.4	22.7	43.3	5.1	50.3	5.0	5.8
The Philippines	-	-	-	1.5	1.0	0.8	3.5
Peru	-	0.2	-	0.0	-	0.1	0.2
Chile	0.5	1.0	0.2	-	0.1	-	-
Brunei Darussalam	-	-	-	-	0.4	-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시스템(keri.koreaexim.go.kr).

APEC Bilateral Linkages Database(statistics.apec.org).

주 : 점유율은 APEC/World*100

제4장 한국 對APEC 투자의 무역효과 실증분석

제1절 모형 및 가설의 설정

1. 연구의 모형

본 연구의 실증분석모형은 기본 중력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중력식은 실증분석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기본모형은 다음 (수식 1) 과 같다.

$$\ln Trade_{ijt}^k = \beta_1^k \ln GDP_{it} + \beta_2^k \ln GDP_{jt} + \beta_3^k \ln Dist_{ij} + \beta_4^k \ln FDI_{ijt} + \mu_{ij} + \varepsilon_{ijt}$$

(수식 1)

$\ln Trade_{ijt}^k$: t 시기 한국(i)의 APEC 각 국가(j)에 대한 품목별(MTI 1단위)⁵⁰⁾ 수출액 또는 수입액에 로그를 취한 값

$\ln GDP_{it}$: t 시기 한국(i)의 실질 GDP에 로그를 취한 값

$\ln GDP_{jt}$: t 시기 APEC 국가(j)의 실질 GDP에 로그를 취한 값

$\ln Dist_{ij}$: 한국(i)과 APEC 국가(j)간 거리(Great Circle Distance)

$\ln FDI_{ijt}$: t 시기 한국(i)의 對APEC 국가(j)에 대한 제조업부문 FDI 실질 유출액 (유입액)에 로그를 취한 값

μ_{ij} : 패널의 개체특성을 나타내는 오차항 또는 확률변수(random variable)

ε_{ijt} : 시간과 패널 개체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

상기 회귀식은 로그선형모형을 취했기 때문에 β 는 탄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설

50) MTI0(농림수산업), MTI1(광산물), MTI2(화학공업제품), MTI3(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MTI4(섬유류), MTI5(생활용품), MTI6(철강금속제품), MTI7(기계류), MTI8(전기전자제품), MTI9(잡제품)

명변수의 1% 변화가 한국의 APEC 국가에 대한 각 산업별 수출액 또는 수입액에 가져오는 %변화를 측정하게 된다. 회귀식에서 $\ln GDP_i$ 와 $\ln GDP_j$ 는 양국의 경제규모, 즉 생산능력 또는 시장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GDP가 증가한다는 것은 생산성의 향상으로 규모의 경제 및 비교우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외국의 수입상품을 흡수할 수 있는 시장규모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국의 GDP가 커질수록 교역규모도 늘어날 것이므로 정(+)의 계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변수로 도입된 거리(distance)는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운송비용, 소요시간, 문화적 이질성, 시장접근 등과 같은 대표적 무역장벽의 비용(trade cost)을 대신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모형에서 사용되는 거리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대표도시간의 위도와 경도를 조합하여 측정한 지표상의 비행거리(great circle distance)를 의미한다. 따라서 양국가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교역액이 감소할 것이므로 부(-)의 계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선행연구의 결과를 따르면 양국간의 거리변수는 과거에 비하여 설명력이 점차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리의 영향에 대한 추정결과는 이론적 예상과 반드시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해외투자(FDI) 변수는 한국과 APEC 국가간 해외투자의 무역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변수이다. 이때 해외투자로 인한 해외생산활동은 해외투자자본의 누적량과 비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연도의 제조업부문 해외직접투자의 유량(flow) 대신 해당연도 직전 5년부터의 투자액의 저장(stock), 즉 유효투자잔액(해당연도 포함 총 6년간의 투자누적액)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가설의 설정

본 논문의 2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해외직접투자는 그 투자단계나 성격에 따라 본국의 수출을 증가(수출유발효과) 또는 감소(수출대체효과)시키거나, 수입을 증가(역수입효과) 또는 수입을 감소(수입대체효과)시킬 수 있다.

먼저 수출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해외에서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본재, 중간재 및 부품 등을 국내(본국)로부터 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출유발효과**

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해외현지에서 직접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량이 감소하는 **수출대체효과**로 인해 본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 특히 해외현지 생산, 판매가 투자국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수출대체효과가 더욱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현지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국내생산 기반이 이전되고 중간재 및 부품을 투자국내에서 현지조달하게 되면 수입이 감소하는 **수입대체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국내생산 후 국내시장 공급에서 투자국 현지에서 생산 후 국내공급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수입이 증가하는 **역수입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외투자의 수출과 수입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대립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 현지법인이 중간재 및 부품을 본국에서 조달하면 한국의 對APEC 수출총량은 증가한다(수출유발효과).

한국의 수출기업이 생산기지를 APEC 국가로 이전하고 현지법인에서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본재, 중간재 및 부품 등을 본국(한국)로부터 수입하게 되면 한국의 對APEC 수출총량이 증가하는 수출유발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각 산업별 수출총액(종속변수)에 대한 제조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저장변수(FDIM_SO)는 양(+)의 부호를 갖게 될 것이다.

가설 2 : 수출기업이 국내 생산 후 수출에서 현지법인 생산 후 현지국 판매로 전환하면 한국의 對APEC 수출총량은 감소한다(수출대체효과).

기업이 국내(한국) 생산 후 수출하는 패턴에서 생산기지를 APEC 국가로 이전하고 현지생산 후 현지국 판매의 형태를 취한다면 한국의 對APEC 수출총량이 감소하는 **수출대체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 산업별 수출총액(종속변수)에 대한 제조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저장변수(FDIM_SO)는 음(-)의 부호를 갖게 될 것이다.

가설 3 : 국내생산 후 국내공급에서 현지법인 생산 후 국내공급으로 전환하면 한국의 對APEC 수입총량은 증가한다(역수입효과).

한국 제조기업이 국내생산 후 국내판매의 패턴에서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생산기반을 APEC 국가로 이전한 후 생산된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패턴을 보인다면 한국의 對APEC 수입총량이 증가하는 **역수입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각 산업별 수입총액(종속변수)에 대한 제조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저량변수(FDIM_SO)는 양(+)**의 부호를 갖게 될 것이다.**

가설 4 : 국내생산 기반 이전으로 중간재 및 부품을 투자국 현지에서 조달하면 한국의 對APEC 수입총량은 감소한다(수입대체효과).

한국 제조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생산기반을 APEC 국가로 이전한 후 생산을 위한 중간재 및 부품을 투자국 현지에서 조달하면 한국의 對APEC 수입총량이 감소하는 수입대체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각 산업별 수입총액(종속변수)에 대한 제조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저량변수(FDIM_SO)는 음(-)**의 부호를 갖게 될 것이다.**

한편 APEC 국가로부터의 외국인투자유치가 한국의 對APEC 수출 및 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부문 외국인투자유치 저량변수(FDIM_SI)를 설명변수로 투입한 모형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상기 이론에 입각하여 외국인투자유치의 무역효과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의 효과와 반대 방향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가설 5 : APEC국가로부터 외국인투자유치는 한국의 對APEC 수입총량을 증가시킨다. (수입유발효과)

가설 6 : APEC국가로부터 외국인투자유치는 한국의 對APEC 수입총량을 감소시킨다. (수입대체효과)

가설 7 : APEC국가로부터 외국인투자유치는 한국의 對APEC 수출총량을 증가시킨다. (수출유발효과)

가설 8 : APEC국가로부터 외국인투자유치는 한국의 對APEC 수출총량을 감소시킨다. (수출대체효과)

제2절 한국의 對APEC 무역패턴 분석

1. 분석자료와 모형의 검정

가. 분석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3년까지의 한국의 APEC국가에 대한 각 산업별(MTI 1단위 기준) 총수출입액, GDP, 양국간 거리 및 해외투자 유출입액 자료를 바탕으로 한 패널데이터(Balanced Panel Data) 분석이다.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한 모형 내 변수의 기초 통계량은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1> 사용 변수의 기초 통계량

Variable	Unit	Obs.	Mean	Std. Dev.	Min	Max
<i>e_total</i>	천USD	380	9,970,000	18,400,000	7,765	146,000,000
<i>i_total</i>	천USD	380	8,750,000	15,100,000	32,200	86,400,000
<i>gdp_h</i>	백만USD	380	816,000	179,000	547,000	1,100,000
<i>gdp_p</i>	백만USD	380	1,210,000	2,800,000	4,510	14,800,000
<i>dist</i>	km	380	6,122	6,122	6,122	6,122
<i>fdim_fo</i>	천USD	333	200,000	533,000	40	4,510,000
<i>fdim_fi</i>	천USD	257	169,000	372,000	2	2,120,000

주1) : 각 년도별 수출입액을 2005년 미국 CPI로 나누어 실질화.

주2) : 2005년 USD 기준 불변가격 기준.

한국의 전세계 및 APEC 지역에 대한 무역 및 투자통계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시스템, UN Comtrade Database 및 APEC의 Bilateral Linkages Database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거리는 양국간 거리단위(Great Circle Distance), 즉 수출국과 교역상대국의 주요 상업도시와의 지표상의 거리를 사용하였으며 Worldatlas의 홈페이지에서 추출하였다.⁵¹⁾ 분석기간은 1995년부터 2013년까지의 총 19년간의 자료이다.

나. 연구모형의 검정

중력방정식과 관련된 기존연구의 상당부분은 연도별로 통상최소자승법(OLS)을 사용하여 회귀식을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오차항에 대한 동분산성, 독립성, 설명변수의 외생성(exogeneity)의 가정이 충족되었을 시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상의 무역흐름으로 구성된 패널데이터는 횡단면 데이터와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동

51) http://www.worldatlas.com/travelaids/flight_distance.htm

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차항에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이나 자기상관 (autocorrelation)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²⁾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 분석,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정 및 페널테 이터모형에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이 존재하는지를 검정하였다.

1) 상관관계 분석

다음 <그림 4-1>은 본 연구에 투입된 주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에는 수출과 수입은 모두 본국과 교역상대국의 GDP와 1% 유의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거리변수는 한국의 수출과 수입에 모두 부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제조업부문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투자유치는 한국의 對APEC 수출과 수입에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는 본국(한국) 보다는 투자상대국의 GDP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는 본국(한국)의 GDP규모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_total	I_total	GDP_h	GDP_p	Dist	FDIM_SO	FDIM_SI
E_total	1.0000						
I_total	0.8046 0.0000	1.0000					
GDP_h	0.2727 0.0000	0.3501 0.0000	1.0000				
GDP_p	0.7984 0.0000	0.7798 0.0000	0.1135 0.0270	1.0000			
Dist	-0.3176 0.0000	-0.3417 0.0000	0.0000 1.0000	-0.0741 0.1495	1.0000		
FDIM_SO	0.8218 0.0000	0.6490 0.0000	0.1392 0.0078	0.6303 0.0000	-0.3235 0.0000	1.0000	
FDIM_SI	0.6869 0.0000	0.6864 0.0000	0.0806 0.1556	0.5947 0.0000	-0.2969 0.0000	0.4554 0.0000	1.0000

<그림 4-1> 변수 간 표준상관계수 측정 결과

52) 잔차가 이질적인 분산을 보일 때 OLS 방식으로 산출된 회귀계수는 비록 편의(biased)되지는 않지만 최소분산(minimum error variance)의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해 계수추정의 정확성(accuracy)을 상실하게 된다. 즉 회귀계수의 표준오차가 필요 이상으로 커지게 된다.

2) 다중공선성 검정

본 연구에서는 먼저 상수항을 포함하여 설명변수들 간에 완전한 선형관계(perfect linear relationship)가 없는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음 <그림 4-2>는 (수식 1)에 대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측정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VIF가 10보가 크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해야 되는데, 아래 결과에서 보듯이 모든 변수의 VIF가 1에 가깝고 1/VIF값이 0.1보가 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 vif
```

Variable	VIF	1/VIF
FDI_SO	2.19	0.456593
GDP_p	1.91	0.523766
GDP_h	1.16	0.865051
Dist	1.05	0.951104
Mean VIF	1.58	

<그림 4-2>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측정 결과

3) 이분산성 검정

최소제곱(LSM) 추정량이 최우수선형불편추정량(BLUE)이 되기 위한 제반 가정 중 동분산성(homoskedasticity) 가정은 효율적인 추정량(efficient estimator)을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제가정이 위배되어 오차항에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이 존재한다면 추정계수의 표준오차 추정치가 올바르게 않게 되며, 이에 따라 추정계수에 대한 가설 검정(t검정, F검정)도 문제가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차항에 이분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효율적인 추정량을 구하는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모형을 채택하고 패널데이터모형에 이분산성이 존재하는지 가설검정하기 위해 LR(Likelihood Ratio; 우도비) 검정을 실시하였다. LR 검정통계량은 $LR = -2(\ln L_R - \ln L_{UR}) \sim \chi^2_{df}$ 로 정의된다.

여기서 $\ln L_R$ 과 $\ln L_{UR}$ 은 각각 제약이 가해진(restricted) 모형과 제약이 없는(unrestricted) 모형의 로그우도함수(log-likelihood function) 값이다. 여기서 비제약모형은 오차항의 분산이 패널그룹에 따라 다르다고 가정하는 것이고, 제약모형은

오차항의 분산이 패널그룹에 다르지 않고 모두 같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각 모형을 추정된 후에 로그우도함수값을 구하여 검정통계량을 계산할 수 있다. 검정통계량은 카이제곱 분포(χ^2_{df})를 따르며 분포의 자유도(df)는 제약이 가해진 모수의 개수가 된다.

모형검정 결과 <그림 4-3>과 같이 LR $\chi^2(19)=0.00$, $\text{Prob}>\chi^2=1.0000$ 으로 나타나 검정통계량의 p값이 0.01보다 크기 때문에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즉, 오차항의 동분산성)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석유가공업 패널데이터모형에는 이분산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 lrtest UR_model R_model, df(19)

Likelihood-ratio test          LR chi2(19) =      0.00
(Assumption: R_model nested in UR_model)    Prob > chi2 =    1.0000
```

<그림 4-3> LR(Likelihood Ratio) 검정 결과

4) 자기상관 검정

최소제곱(LSM) 추정량이 최우수선형불편추정량(BLUE)이 되기 위해서는 오차항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야 한다. 이분산성과 마찬가지로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이 존재한다면 추정계수의 표준오차 추정치가 올바르게 않게 되며, 이에 따라 표준오차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t값과 p값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 모형에 자기상관이 존재하는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수식 1)에 대하여 다음 <그림 4-4>와 같이 Wooldrige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p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5% 유의수준에서 1계 자기상관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차항에 1계 자기상관이 존재하므로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기 위해서는 1계 자기 상관을 가정하면서 모형을 추정해야하는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Wooldridge test for autocorrelation in panel data
H0: no first-order autocorrelation
F( 1, 19) = 6.657
Prob > F = 0.0183
    
```

<그림 4-4> Wooldrige 검정 결과

5) 하우스만 검정

전체산업모형에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 중 어떤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하였다.

패널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추정방정식의 상수항과 계수가 산업그룹별 및 연도별로 같은가 여부와 오차항의 구조에 따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나누어지는데, 고정효과모형은 개별효과를 일종의 상수항으로 처리하며 확률효과모형은 개별효과를 오차항의 일부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고정효과모형인지 확률효과모형인지를 판단할 때 일차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데이터에서 패널 개체의 특성을 의미하는 u_i 에 대한 추론(Inference)이다. 패널 개체들이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이 아니라 특정 모집단 그 자체라면 오차항 u_i 는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말할 수 없다.

계량경제학 이론 측면에서는 $cov(x_{ij}, u_i)=0$ 가정이 성립한다면 고정효과 추정량과 확률효과 추정량이 모두 일치추정량이기 때문에 서로 유사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cov(x_{ij}, u_i) \neq 0$ 이면 확률효과 추정량은 일치추정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추정결과에 차이(Systematic Difference)가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의 선택은 $cov(x_{ij}, u_i)=0$ 가정의 성립여부, 또는 고정효과 추정치와 확률효과 추정치의 체계적 차이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 <그림 4-5>는 (수식 1)에 대한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p 값이 0.01보다 작기 때문에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

되었다. 따라서 확률효과 모형의 추정량은 일치추정량이 아니며,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 hausman FE RE

```

	Coefficients		(b-B) Difference	sqrt(diag(V_b-V_B)) S.E.
	(b) FE	(B) RE		
GDP_h	.720911	1.452158	-.7312468	.1650462
GDP_p	1.789919	.8825877	.9073314	.1839383
FDIM_SO	.0045272	.0704749	-.0659477	.0079604

b = consistent under Ho and Ha; obtained from xtreg
 B = inconsistent under Ha, efficient under Ho; obtained from xtreg

Test: Ho: difference in coefficients not systematic

chi2(3) = (b-B)'[(V_b-V_B)⁻¹](b-B)
 = 68.56
 Prob>chi2 = 0.0000
 (V_b-V_B is not positive definite)

<그림 4-5>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결과

6) 모형검증 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모형에 대한 다중공선성 검정결과 모든 변수의 VIF가 1에 가깝고 1/VIF값이 0.1보다 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모형에 대한 이분산성과 자기상관 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분산성은 존재하지 않으나 오차항 e_{it} 에 1계 자기상관이 존재하므로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기 위해서는 1계 자기상관을 가정하면서 모형을 추정해야하는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체산업에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 중 어떠한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환경민감산업 전체산업에 대한 분석모형은 Baltagi and Wu(1999)⁵³⁾가 제시한 GLS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1계 자기상관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고정효과모형

53) Badi H. Baltagi and Ping X. Wu (1999), "Unequally Spaced Panel Data Regression Models with AR(1) Remainder Disturbances," *Econometric Theory*, Vol. 15, pp. 814-823.

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 한국의 對APEC 수출패턴 분석결과

다음 <표 4-2>는 모형검정 결과를 토대로 분산 행렬 가정이 위배되는 경우에 효율적인 추정량을 구하는 패널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방식으로 1계 자기상관만을 가정하여 한국의 對APEC 수출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표 4-2> 1계 자기상관을 가정한 패널 GLS 분석 결과

	(1) E_total	(2) E_mti0	(3) E_mti1	(4) E_mti2	(5) E_mti3
GDP_h	1.531*** (4.65)	1.217** (3.18)	3.529*** (3.89)	1.945*** (5.39)	0.954*** (3.36)
GDP_p	0.835*** (12.89)	0.914*** (10.71)	0.884*** (5.80)	0.786*** (10.67)	0.793*** (14.02)
Dist	-0.678*** (-4.51)	-1.547*** (-7.90)	-1.767*** (-5.01)	-0.979*** (-5.72)	-0.556*** (-4.23)
_cons	-36.34*** (-4.05)	-27.03** (-2.59)	-86.77*** (-3.50)	-46.30*** (-4.70)	-23.96** (-3.09)
N	380	371	379	380	380
	(1) E_mti4	(2) E_mti5	(3) E_mti6	(4) E_mti7	(5) E_mti8
GDP_h	-0.597 (-1.74)	-0.416 (-1.25)	1.617*** (4.30)	2.319*** (8.53)	1.008 (1.80)
GDP_p	0.906*** (11.31)	1.012*** (16.69)	0.824*** (13.21)	0.767*** (16.92)	0.982*** (8.82)
Dist	-0.697*** (-3.73)	-0.720*** (-5.12)	-0.923*** (-6.38)	-0.194 (-1.84)	-0.802** (-3.10)
_cons	17.19 (1.84)	7.945 (0.87)	-38.90*** (-3.79)	-61.89*** (-8.34)	-26.27 (-1.72)
N	380	380	380	380	380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분석결과를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GDP규모는 한국의 對APEC 전체수출에 정(+)¹의 영향($\beta_1=1.531$ p<0.01)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GDP가 1% 증가할 때마다 對APEC수출이 약 1.53%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역상대국의 GDP규모 역시 한국의 상품수출에 정(+)²의 영향($\beta_2=0.835$ p<0.01)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對APEC 상품수출은 교

역상대국의 시장규모보다는 자국의 시장규모에 더 많은 영향($\beta_1 > \beta_2$)을 받고 있으므로 제품차별화모형에 입각한 자국시장효과(Home Market Effect)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⁵⁴⁾ 이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의 무역패턴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일반적인 결과와 일치한다.

MTI 1단위 산업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농림수산업(MTI0), 광산물(MTI1), 화학공업제품(MTI2),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MTI3), 철강금속제품(MTI6), 기계류(MTI7)는 전체산업수출모형과 같이 한국의 GDP가 증가하면 수출이 따라서 증가하며, 교역상대국의 시장규모보다는 한국의 시장규모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섬유류(MTI4), 생활용품(MTI5) 및 전기전자제품(MTI8)은 한국의 시장규모 증가와 수출간에 통계적인 유의관계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교역상대국의 시장규모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자국의 시장규모보다는 교역상대국의 시장규모에 더 많은 영향($\beta_2 > \beta_1$)을 받고 있으므로 Armington(1969)의 생산국가별 차별화(National Product Differentiation)모형⁵⁵⁾에 입각한 자국시장효과(home-market effect)의 역효과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생산국가별 차별화모형에서는 두 국가 간 생산되는 다양성의 수가 1로 동일하고 진입장벽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큰 시장규모를 가진 국가에서의 수요의 증가는 지속적인 제품의 수입을 요구하지만 기업의 신규진입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생산국가별 차별화 모형에서는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가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게 되어 순수출국이 되는 자국시장효과(Home-Market Effect)의 역효과가 나타난다.

한편으로는 섬유류 및 생활용품 산업의 경우에는 한국의 경제규모 및 소득수준이 증가하였으나, 인건비상승 등의 원인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산업이전이 진행되고 투자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였다.

54) 자국시장효과와 상대국시장효과에 대한 이론적 개념은 Robert. C. Feenstra, James A. Markusen and Andrew K. Rose., "Using The Gravity Equation To Differentiate Among Alternative Theories of Trade." *NBER Working Paper*, No. 6804, 1999. 참조.

55) Paul S. Armington, "A Theory of Demand for Products Distinguished by Place of Production," *IMF Staff Papers* 16, 1969, pp.159-176.

제3절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유치의 무역효과

1.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분석

가. FDI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

해외직접투자가 무역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본 연구의 선행연구 검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출유발효과, 수입전환효과, 수출대체효과, 역수입효과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수출유발효과는 해외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투자국으로부터 조달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출증대 효과이며, 수입전환효과는 투자국이 수출을 위해 수입했던 원부자재들을 해외에서 조달하여 수입이 감소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수출대체효과는 해외생산을 통해 현지에서 직접 판매함에 따라 투자국으로부터의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이며, 역수입효과는 투자국이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여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효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한 투자형태, 투자 단계별로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⁵⁶⁾ 해외직접투자와 한국의 상품수출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 확대에 따른 해외현지생산 증가가 아직까지는 한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음 <표 4-3>은 (식 1)을 모형검정결과 검정결과에 따라 1계 자기상관을 고려한 패널 GLS 및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으로 각 산업별로 제조업부문 해외직접투자가 對APEC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56) 제현정, “확대되는 해외직접투자, 우리 수출에 득(得)인가 실(失)인가?” 「Trade Focus」, Vol. 11, No. 46,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012, pp.9-10.

<표 4-3> FDI의 산업별 수출효과 분석(GLS, FE Model) 결과(1/2)

	Et_gls	Et_fe	Em0_gls	Em0_fe
GDP_h	1.193*** (3.98)	0.721*** (3.44)	0.908* (2.48)	0.812** (2.82)
GDP_p	0.577*** (8.86)	1.790*** (8.78)	0.754*** (8.78)	1.107*** (3.95)
Dist	-0.515*** (-4.14)	.	-1.438*** (-8.67)	.
FDIM_SO	0.232*** (5.41)	0.005 (0.13)	0.135* (2.47)	0.057 (1.20)
_cons	-25.965** (-3.16)	-45.102*** (-15.52)	-17.757 (-1.77)	-35.096*** (-8.80)
N	364	364	362	362
adj. R-sq		0.664		0.387

	Em1_gls	Em1_fe	Em2_gls	Em2_fe
GDP_h	3.045*** (3.92)	4.897*** (6.64)	1.488*** (5.14)	1.459*** (6.92)
GDP_p	0.424** (2.75)	-0.486 (-0.68)	0.452*** (7.29)	1.410*** (6.89)
Dist	-1.466*** (-5.09)	.	-0.779*** (-6.59)	.
FDIM_SO	0.370*** (3.42)	0.118 (0.98)	0.255*** (6.18)	-0.030 (-0.87)
_cons	-70.742*** (-3.32)	-105.052*** (-10.29)	-31.332*** (-3.95)	-56.982*** (-19.52)
N	364	364	364	364
adj. R-sq		0.323		0.700

	Em3_gls	Em3_fe	Em4_gls	Em4_fe
GDP_h	0.766*** (3.90)	1.074*** (5.78)	-1.180*** (-4.16)	-1.938*** (-10.42)
GDP_p	0.529*** (12.46)	0.505** (2.80)	0.655*** (9.79)	1.623*** (8.99)
Dist	-0.434*** (-5.36)	.	-0.500*** (-3.82)	.
FDIM_SO	0.199*** (7.09)	0.061* (2.02)	0.245*** (5.94)	-0.022 (-0.72)
_cons	-16.558** (-3.07)	-25.462*** (-9.90)	33.539*** (4.31)	29.578*** (11.49)
N	364	364	364	364
adj. R-sq		0.518		0.196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표 4-4> FDI의 산업별 수출효과 분석(GLS, FE Model) 결과(2/2)

	Em5_gls	Em5_fe	Em6_gls	Em6_fe
GDP_h	-1.003*** (-3.40)	-1.903*** (-7.66)	1.221*** (4.41)	1.108*** (4.13)
GDP_p	0.746*** (12.43)	1.903*** (7.88)	0.463*** (8.37)	1.854*** (7.11)
Dist	-0.539*** (-4.79)	.	-0.702*** (-6.79)	.
FDIM_SO	0.260*** (6.29)	0.017 (0.41)	0.308*** (7.98)	-0.039 (-0.89)
_cons	24.665** (3.05)	18.783*** (5.46)	-26.056*** (-3.44)	-59.052*** (-15.88)
N	364	364	364	364
adj. R-sq		0.117		0.605

	Em7_gls	Em7_fe	Em8_gls	Em8_fe
GDP_h	1.990*** (7.60)	1.424*** (5.56)	0.685 (1.59)	-0.541* (-2.01)
GDP_p	0.561*** (10.35)	1.769*** (7.11)	0.747*** (7.10)	2.254*** (8.62)
Dist	-0.032 (-0.31)	.	-0.667** (-3.22)	.
FDIM_SO	0.217*** (5.86)	0.019 (0.46)	0.213*** (3.38)	0.173*** (3.95)
_cons	-52.837*** (-7.36)	-65.774*** (-18.54)	-16.293 (-1.38)	-27.273*** (-7.32)
N	364	364	364	364
adj. R-sq		0.679		0.495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분석결과, 한국과 APEC 교역상대국의 시장규모(GDP)가 미치는 효과는 1계 자기 상관을 고려한 패널 GLS분석 결과와는 반대로 고정효과모형의 경우에는 한국의 對APEC 전체산업수출은 한국의 시장규모 보다는 교역상대국의 시장규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역의 자국시장효과(reversed home-market effect)가 나타났다.

FE모형의 산업별 분석결과를 보면 광산물(MTI1), 화학공업제품(MTI2),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MTI3), 철강금속제품(MTI6), 기계류(MTI7)는 한국의 GDP가 증가하면 수출이 따라서 증가하며, 교역상대국의 시장규모보다는 한국의 시장규모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패턴이 나타났다.

반면 농림수산업(MTI0), 섬유류(MTI4), 생활용품(MTI5) 및 전기전자제품(MTI8)

은 교역상대국의 시장규모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석유류(MTI4) 및 생활용품(MTI5)은 한국의 GDP가 1% 증가하면 오히려 수출이 약 1.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對APEC 국가에 대한 제조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수출효과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계 자기상관을 고려한 패널 GLS분석 결과에서는 MTI 1단위 기준 모든 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FDI Stock, Outward)는 한국의 투자대상국 수출을 증가시키는 수출유발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해외직접투자의 수출입유발효과를 분석한 국내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1% 증가할 상품수출이 약 0.1%에서 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⁷⁾ 이는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확대는 해외현지법인과 국내 모기업간의 수직적(vertical) 무역형태를 확대시켜 해외법인에 대한 부품·소재 수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⁵⁸⁾

산업별로는 APEC 국가에 대한 FDI가 1% 증가하면 광산물이 약 0.37%, 철강금속제품이 0.30%, 생활용품이 0.26%, 석유류가 0.24% 증가하여 기타 산업에 비하여 비교적 큰 수출유발효과가 발생되고 있으며, 농림수산물은 0.13%,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이 0.19%로 수출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고정효과모형 분석에서는 방향성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일치하나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beta_i=0.061$ $p<0.1$)과 전자전기제품($\beta_i=0.173$ $p<0.01$) 산업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출유발효과가 관찰되었다.

나. FDI가 수입에 미치는 효과

다음 <표 4-4>는 (식 1)을 모형검정결과 검정결과에 따라 1계 자기상관을 고려한 패널 GLS 및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으로 각 산업별 對APEC 수출을 분석한 결과이다.

57) 이은석, 이정욱, 박나연, 김유신, “국내기업 해외현지생산 확대의 영향 및 시사점,” 「BOK 경제리뷰」, No. 2012-4, 2012, pp.8-12.

58) 김종호, “해외투자의 수출입유발효과 분석 및 정책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국수출입은행, 2011, pp.162-182.

<표 4-5> FDI의 산업별 수입효과 분석(GLS, FE Model) 결과(1/2)

	It_gls	It_fe	Im0_gls	Im0_fe
GDP_h	2.070*** (11.25)	0.840*** (4.95)	1.236*** (4.54)	0.503* (2.55)
GDP_p	0.631*** (13.82)	1.594*** (9.67)	0.528*** (7.96)	1.045*** (5.46)
Dist	-0.529*** (-5.85)	.	0.295* (2.26)	.
FDIM_SO	0.022 (0.80)	0.076** (2.76)	0.123** (3.09)	0.116*** (3.62)
_cons	-47.443*** (-9.40)	-44.657*** (-19.01)	-33.244*** (-4.45)	-24.212*** (-8.87)
N	364	364	364	364
adj. R-sq		0.764		0.533
	Im1_gls	Im1_fe	Im2_gls	Im2_fe
GDP_h	2.673*** (5.12)	2.257*** (5.71)	2.273*** (3.37)	0.741 (1.85)
GDP_p	0.341** (2.66)	0.838* (2.18)	1.596*** (6.38)	1.596*** (4.25)
Dist	0.128 (0.51)	.	-0.515 (-0.98)	.
FDIM_SO	0.110 (1.44)	0.144* (2.23)	-0.035 (-0.34)	0.023 (0.34)
_cons	-65.582*** (-4.58)	-66.925*** (-12.22)	-80.925*** (-4.32)	-44.184*** (-7.77)
N	364	364	352	352
adj. R-sq		0.483		0.332
	Im3_gls	Im3_fe	Im4_gls	Im4_fe
GDP_h	0.435 (0.69)	0.295 (0.66)	1.010 (1.75)	-0.126 (-0.32)
GDP_p	1.065*** (6.91)	1.424*** (3.42)	1.099*** (6.94)	2.016*** (5.44)
Dist	-0.971*** (-3.31)	.	-1.484*** (-4.72)	.
FDIM_SO	0.311*** (3.37)	0.152* (1.99)	0.173* (2.02)	-0.392*** (-6.12)
_cons	-21.216 (-1.22)	-32.047*** (-5.07)	-30.580 (-1.92)	-25.469*** (-4.70)
N	354	354	357	357
adj. R-sq		0.229		0.150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표 4-6> FDI의 산업별 수입효과 분석(GLS, FE Model) 결과(2/2)

	Im5_gls	Im5_fe	Im6_gls	Im6_fe
GDP_h	-0.853 (-1.41)	-1.064* (-2.15)	1.971*** (3.80)	1.993*** (4.84)
GDP_p	0.695*** (5.60)	1.297** (2.70)	1.350*** (11.30)	1.970*** (5.04)
Dist	-1.428*** (-6.13)	.	-0.340 (-1.50)	.
FDIM_SO	0.600*** (7.05)	0.323*** (4.00)	-0.133 (-1.77)	-0.292*** (-4.25)
_cons	21.621 (1.31)	4.693 (0.68)	-65.277*** (-4.58)	-82.152*** (-14.27)
N	362	362	359	359
adj. R-sq		0.063		0.478

	Im7_gls	Im7_fe	Im8_gls	Im8_fe
GDP_h	0.533 (0.79)	0.754 (1.70)	1.374* (2.05)	1.013** (2.65)
GDP_p	1.469*** (10.13)	2.285*** (5.34)	1.088*** (5.93)	1.495*** (4.12)
Dist	-1.350*** (-4.95)	.	-2.112*** (-5.75)	.
FDIM_SO	0.264** (2.74)	0.003 (0.05)	0.323** (3.26)	0.127* (2.03)
_cons	-29.406 (-1.58)	-63.471*** (-10.30)	-35.949 (-1.95)	-50.830*** (-9.60)
N	361	361	359	359
adj. R-sq		0.387		0.423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한국의 對APEC 국가에 대한 제조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수입효과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산업 수입 고정효과 분석 결과에서 해외직접투자(FDI Stock, Outward)가 1% 증가할 시 APEC 투자대상국에서의 수입을 약 0.08%($\beta_4=0.076$ p<0.01) 증가시키는 역수입효과가 관찰되었다.

고정효과모형을 통한 각 산업별 분석에서는 APEC 국가에 대한 FDI가 1% 증가하면 농산물 약 0.12%, 광산물이 0.14%,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이 0.15%, 생활용품이 0.32%, 전기전자제품이 0.13% 수준으로 수입이 증가하는 역수입효과가 관찰되었다.

반면 섬유류 및 철강금속제품은 APEC 국가에 대한 FDI가 1% 증가하면 투자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각각 0.39%, 0.13% 감소하는 수입대체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광산물, 기계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무역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2. 외국인투자유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분석

가. 외국인투자유치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

다음 <표 4-5>는 APEC 국가로부터의 외국인투자유치가 한국의 對APEC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1계 자기상관을 고려한 패널 GLS와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4-7> 외국인투자유치의 산업별 수출효과 분석(GLS, FE Model) 결과(1/2)

	Et_gls	Et_fe	Em0_gls	Em0_fe
GDP_h	1.440*** (3.84)	0.953*** (3.97)	0.895** (2.85)	1.188*** (5.04)
GDP_p	0.564*** (6.16)	1.475*** (6.61)	0.723*** (7.77)	1.261*** (5.75)
Dist	-0.555** (-3.27)	.	-1.404*** (-8.01)	.
FDIM_SI	0.093* (2.41)	0.000 (0.01)	0.069* (2.11)	-0.108*** (-3.69)
_cons	-29.202** (-2.81)	-43.183*** (-10.98)	-15.430 (-1.77)	-46.427*** (-12.07)
N	312	312	306	306
adj. R-sq		0.603		0.538

	Em1_gls	Em1_fe	Em2_gls	Em2_fe
GDP_h	2.955** (2.95)	4.495*** (5.87)	1.851*** (5.08)	1.556*** (6.79)
GDP_p	0.479* (2.04)	0.179 (0.25)	0.624*** (7.25)	1.032*** (4.85)
Dist	-1.435*** (-3.32)	.	-0.894*** (-5.64)	.
FDIM_SI	0.166 (1.63)	-0.200* (-2.09)	0.024 (0.64)	0.017 (0.61)
_cons	-65.750* (-2.37)	-105.580*** (-8.41)	-40.445*** (-4.01)	-50.584*** (-13.46)
N	312	312	312	312
adj. R-sq		0.258		0.661

	Em3_gls	Em3_fe	Em4_gls	Em4_fe
GDP_h	1.124*** (4.42)	1.496*** (6.61)	-0.509 (-1.65)	-1.635*** (-8.78)
GDP_p	0.699*** (10.94)	0.241 (1.15)	0.732*** (8.14)	1.227*** (7.09)
Dist	-0.545*** (-4.58)	.	-0.753*** (-4.35)	.
FDIM_SI	0.028 (1.09)	-0.017 (-0.59)	-0.009 (-0.28)	-0.020 (-0.85)
_cons	-26.685*** (-3.80)	-28.511*** (-7.69)	20.106* (2.36)	31.670*** (10.37)
N	312	312	312	312
adj. R-sq		0.430		0.188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표 4-8> 외국인투자유치의 산업별 수출효과 분석(GLS, FE Model) 결과(2/2)

	Em5_gls	Em5_fe	Em6_gls	Em6_fe
GDP_h	-0.239 (-0.69)	-1.421*** (-6.03)	1.332*** (3.51)	1.264*** (4.08)
GDP_p	0.876*** (10.11)	1.293*** (5.90)	0.536*** (6.30)	1.307*** (4.54)
Dist	-0.706*** (-4.37)	.	-0.704*** (-4.54)	.
FDIM_SI	0.023 (0.64)	0.014 (0.48)	0.102** (2.67)	0.006 (0.14)
_cons	6.265 (0.66)	21.708*** (5.62)	-26.913* (-2.56)	-49.795*** (-9.80)
N	312	312	312	312
adj. R-sq		0.058		0.500

	Em7_gls	Em7_fe	Em8_gls	Em8_fe
GDP_h	2.347*** (8.25)	1.621*** (5.77)	0.844 (1.89)	-0.250 (-0.83)
GDP_p	0.535*** (8.67)	1.608*** (6.16)	0.567*** (5.34)	2.003*** (7.17)
Dist	-0.105 (-0.94)	.	-0.630** (-3.22)	.
FDIM_SI	0.090** (3.19)	-0.004 (-0.10)	0.167*** (3.68)	0.102** (2.72)
_cons	-58.729*** (-7.46)	-66.692*** (-14.48)	-14.941 (-1.21)	-27.384*** (-5.55)
N	312	312	312	312
adj. R-sq		0.658		0.454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한국의 對APEC 국가로부터의 외국인투자유치의 수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산업 수출 패널 GLS모형 분석 결과에서 제조업 부문 외국인 투자유치(FDI Stock, Inward)가 1% 증가할 시 對APEC 수출은 약 0.09% ($\beta_4=0.093$ p<0.05) 증가하는 수출유발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3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APEC국가들의 제조기업이 한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생산 후 자국으로 역수입하여 한국의 입장에서는 수출이 증가하였다고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정효과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고정효과모형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각 산업별 외국인투자유치의 수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PEC국가로부터의 제조업부문 외국인투자유치가 1% 증가하면 전기전자제품은 약 0.10% 수출이 증가하는 수출유발효과가 존재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농림수산물과 광산물은 수출이 각각 0.11%, 0.20% 감소시키는 수출대체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패널 GLS모형에서는 고정효과모형의 분석결과와 다소 상반되는 결과가 제시되었는데, 농림수산물, 철강금속 제품, 기계류 및 전기전자제품에서 수출유발효과가 관찰되었으며,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섬유류 및 생활용품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출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나. 외국인투자유치가 수입에 미치는 효과

다음 <표 4-6>은 APEC 국가로부터의 외국인투자유치가 한국의 對APEC 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1계 자기상관을 고려한 패널 GLS와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4-9> 외국인투자유치의 산업별 수입효과 분석(GLS, FE Model) 결과(1/2)

	It_gls	It_fe	Im0_gls	Im0_fe
GDP_h	2.049*** (11.17)	1.043*** (7.11)	2.391*** (5.31)	1.718*** (6.13)
GDP_p	0.529*** (11.45)	1.101*** (8.08)	1.038*** (7.25)	0.487 (1.87)
Dist	-0.488*** (-5.66)	.	0.112 (0.40)	.
FDIM_SI	0.049** (2.60)	0.062*** (3.40)	-0.100* (-2.17)	-0.086* (-2.46)
_cons	-44.884*** (-8.85)	-36.868*** (-15.34)	-73.028*** (-5.87)	-39.129*** (-8.56)
N	312	312	310	310
adj. R-sq		0.799		0.390
	Im1_gls	Im1_fe	Im2_gls	Im2_fe
GDP_h	2.859*** (4.85)	2.774*** (6.78)	1.905* (2.26)	1.940** (3.13)
GDP_p	0.369* (2.26)	0.429 (1.13)	1.206*** (4.61)	0.172 (0.30)
Dist	0.080 (0.26)	.	-0.554 (-1.09)	.
FDIM_SI	0.018 (0.29)	-0.065 (-1.27)	0.031 (0.36)	0.087 (1.12)
_cons	-69.180*** (-4.25)	-66.415*** (-9.90)	-61.125** (-2.62)	-40.113*** (-3.95)
N	312	312	312	312
adj. R-sq		0.420		0.144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표 4-10> 외국인투자유치의 산업별 수입효과 분석(GLS, FE Model) 결과(2/2)

	Im3_gls	Im3_fe	Im4_gls	Im4_fe
GDP_h	0.714 (1.15)	0.649 (1.66)	1.117 (1.94)	-0.394 (-1.05)
GDP_p	1.209*** (6.91)	1.017** (2.80)	1.099*** (6.11)	1.030** (2.96)
Dist	-0.830* (-2.50)	.	-1.796*** (-5.12)	.
FDIM_SI	0.136* (2.12)	0.072 (1.47)	-0.114 (-1.93)	-0.036 (-0.77)
_cons	-30.286 (-1.77)	-29.181*** (-4.57)	-25.482 (-1.60)	1.472 (0.24)
N	310	310	312	312
adj. R-sq		0.243		-0.019
	Im5_gls	Im5_fe	Im6_gls	Im6_fe
GDP_h	0.185 (0.35)	-0.013 (-0.04)	1.814*** (4.17)	1.751*** (5.47)
GDP_p	1.113*** (9.05)	1.069*** (3.84)	1.223*** (11.14)	1.003*** (3.38)
Dist	-1.623*** (-7.25)	.	-0.464* (-2.27)	.
FDIM_SI	0.098 (1.82)	0.052 (1.40)	-0.036 (-0.81)	-0.003 (-0.08)
_cons	-6.625 (-0.45)	-12.755** (-2.60)	-58.507*** (-4.87)	-55.389*** (-10.58)
N	311	311	311	311
adj. R-sq		0.189		0.511
	Im7_gls	Im7_fe	Im8_gls	Im8_fe
GDP_h	0.307 (0.55)	0.907* (2.55)	1.665* (2.39)	0.988** (2.61)
GDP_p	1.389*** (10.39)	1.745*** (5.29)	0.919*** (3.77)	0.964** (2.74)
Dist	-1.018*** (-4.17)	.	-1.742*** (-3.60)	.
FDIM_SI	0.240*** (4.21)	0.009 (0.20)	0.191** (2.70)	0.168*** (3.56)
_cons	-22.948 (-1.48)	-53.244*** (-9.19)	-39.519* (-2.06)	-36.153*** (-5.83)
N	310	310	312	312
adj. R-sq		0.457		0.404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한국의 對APEC 국가로부터의 외국인투자유치의 수입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산업 수입 패널 GLS모형 분석 및 고정효과분석모형 모두에서 제조업 부문 외국인투자유치(FDI Stock Inward)가 1% 증가할 시 對APEC 수입은 약 0.05%~0.62% 증가하는 수입유발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1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APEC국가들의 제조기업이 한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본재, 중간재 및 부품을 본국으로 수입한 결과라고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MTI 1단위 기준 각 산업별 외국인투자유치의 수입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APEC국가로부터의 제조업부문 외국인투자유치가 1% 증가하면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은 약 0.14%, 기계류는 0.24%, 전기전자제품은 약 0.19%~0.17% 증가하는 수입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농림수산물은 APEC국가로부터의 제조업부문 외국인투자유치가 1% 증가하면 수입이 약 0.10%~0.09% 감소하는 수입대체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APEC 국가의 농림수산업이 한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및 최종재를 한국내에서 조달하고 한국내 판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생활용품 및 철강금속제품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입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제4절 가설의 검증 및 정책적 시사점

1. 해외투자의 무역효과 가설검증 결과

가. 해외직접투자의 무역효과 가설검증 결과

다음 <표 4-7>은 한국의 APEC 국가로의 제조업부문 해외직접투자의 무역효과를 패널 GLS 및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이다.

<표 4-11> 한국의 對APEC FDI의 무역효과 가설검증 결과

가설	효과	방향	모형	가설채택
가설 1	수출유발효과 (중간재 조달)	+	GLS	전체산업, MTI0, MTI1, MTI2, MTI3, MTI4, MTI5, MTI6, MTI7, MTI8
			FE	MTI3, MTI8
가설 2	수출대체효과 (최종재 조달)	-	GLS	기각
			FE	기각
가설 3	역수입효과 (최종재 조달)	+	GLS	MTI0, MTI3, MTI4, MTI5, MTI7, MTI8
			FE	전체산업, MTI0, MTI1, MTI3, MTI5, MTI8
가설 4	수입대체효과 (중간재 조달)	-	GLS	기각
			FE	MTI4, MTI6

주 : MTI0(농림수산업), MTI1(광산물), MTI2(화학공업제품), MTI3(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MTI4(섬유류), MTI5(생활용품), MTI6(철강금속제품), MTI7(기계류), MTI8(전기전자제품), MTI9(잡제품)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한국의 對 APEC 국가에 대한 제조업부문 해외직접투자는 중간재 조달의 형태를 띠면서 모든 산업 부문의 자본재, 중간재 및 부품 등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반면 수출기업이 국내 생산 후 수출에서 현지법인 생산 후 현지국 판매로 전환하면서 한국의 對APEC 수출총량은 감소한다는 가설 2는 모든 산업 부문에서 기각되었다.

또한 국내생산 후 국내공급에서 현지법인 생산 후 국내공급으로 전환하면 한국의 對 APEC 수입총량이 증가한다는 가설 3은 분석모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체 산업, MTI0(농림수산업), MTI1(광산물), MTI3(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MTI4(섬유류), MTI5(생활용품), MTI7(기계류), MTI8(전기전자제품)에서 채택되었으나, MTI2(화학공업제품), MTI6(철강금속제품)에서는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내생산 기반 이전으로 중간재 및 부품을 투자국 현지에서 조달하면

한국의 對APEC 수입총량은 감소한다는 가설 3은 고정효과모형에서 MTI4(섬유류)와 MTI6(철강금속제품)에서 채택되었다. 여기서 섬유류의 무역효과는 분석모형에 따라 그 효과가 역수입효과와 수입대체효과가 모두 지지됨에 따라 통계적 안정성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외국인투자유치의 무역효과 가설검증 결과

다음 <표 4-8>은 한국의 APEC 국가로부터의 외국인투자유치의 무역효과를 패널 GLS 및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이다.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APEC 국가로부터 외국인투자유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내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본국(투자국)으로부터 조달함에 따라 한국의 對APEC 수입총량을 증가시킨다는 가설 4를 검증한 결과 전체산업, MTI3(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MTI7(기계류) 및 MTI8(전기전자제품)에서 채택되었다.

반면 투자기업이 국내 생산 후 수출에서 한국내 현지법인 생산 후 한국내 판매로 전환하면서 한국의 對APEC 수입총량이 감소한다는 가설 5는 MTI0(농림수산업)에서 채택되었다.

또한 국내생산 후 국내공급에서 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이후 현지법인(한국) 생산 후 국내(투자국) 공급으로 전환하면 한국의 對APEC 수출총량이 증가한다는 가설 6은 전체산업, MTI0(농림수산업), MTI6(철강금속제품), MTI7(기계류), MTI8(전기전자제품)에서 채택되었다.

<표 4-12> 한국의 對APEC 외국인투자유치의 무역효과 가설검증 결과

가설	효과	방향	모형	가설채택
가설 5	수입유발효과 (중간재 조달)	+	GLS	전체산업, MTI3, MTI7, MTI8
			FE	전체산업, MTI8
가설 6	수입대체효과 (최종재 조달)	-	GLS	MTI0
			FE	MTI0
가설 7	수출유발효과 (최종재 조달)	+	GLS	전체산업, MTI0, MTI6, MTI7, MTI8
			FE	MTI8
가설 8	수출대체효과 (중간재 조달)	-	GLS	기각
			FE	MTI0, MTI1

주 : MTI0(농림수산업), MTI1(광산물), MTI2(화학공업제품), MTI3(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MTI4(섬유류), MTI5(생활용품), MTI6(철강금속제품), MTI7(기계류), MTI8(전기전자제품), MTI9(잡제품)

마지막으로 투자국 기업이 국내생산 기반 이전 후 중간재 및 부품을 투자국 현지(한국)에서 조달하면 한국의 對APEC 수출총량은 감소한다는 가설 6은 고정효과모형에서 MTI0(농림수산업), MTI1(광산물)에서 채택되었다.

2. 분석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가설의 검정결과에는 한국의 對APEC 직접투자의 외국인투자유치는 전산업군에 걸쳐 한국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뚜렷이 발생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가. 해외직접투자 지원정책의 효율성 확보

해외법인과의 수출입이 전반적으로 한국의 수출입을 확대하고 안정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해외직접투자의 지원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 산업별 수출

입 효과를 감안하여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통하여 정책효과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산업과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주력 수출 업종으로서 무역수지와 수익성이 양호한 점을 감안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금융의 확대 등 지원책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많은 업종으로 한국으로부터의 부품 및 중간재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며, 물류 등 부품 및 중간재의 공급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투자대상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투자위험보험 등 보험료의 산정시 급격히 해외직접투자 및 현지법인 수출이 증가하는 지역, 특히 신흥국가의 경우 우대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⁵⁹⁾

나. 신흥국 정보 제공 확대 필요

신흥국 등 경영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의 성장, 정책 추이 및 산업구조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하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수익성으로 인해 개도국 등 신흥국에 대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국가의 투자 및 경영 환경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기업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신흥국 시장 진출 전략에서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을 위한 직접투자 전략과도 같은 맥락이다. 투자에 따른 수출효과도 이들 국가에서 크게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직 개도국 등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아 일반적인 정보 분석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맞춤형 정보의 제공을 강화하여야 한다. 기업의 해외 진출 컨설팅 결과 중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포상기업에게 포상 관련 정보의 작성을 의뢰하고 게시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맞춤형 전문 인력 교육 제도 강화

현지 경영의 핵심인 글로벌 인력의 양성과 공급을 강화하되, 산업과 국가별 맞춤형

59)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의 수출입유발효과 분석 및 정책 시사점,” 2013, pp.190-194.

교육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주로 수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존 무역 인력 양성 사업에서 마케팅, 인사 등 현지경영에 중점을 두어 글로벌 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재편하여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개도국의 경우 최근 현지인들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지 직원들과의 노사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역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해가 동반될 수 있게끔 개도국 현지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현지 대학 출신 한국인에게 채용을 우대 하는 등의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라. 중소기업 현지법인 경영 및 수출입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현지시장 진출 경영 컨설팅을 강화하고 한국과의 수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매출 확장세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한국과의 수출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한국 대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이 많이 높아졌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크고 현지 법인의 경영성과도 대기업에 비해 열위한 상황이다. 따라서 경영 컨설팅, 금융 지원, 인력 양성 등 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현지법인과 수출입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베트남과 중국 등에서 역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입 제품이 한국 기업의 제품에 가깝고, 추가 가공을 거쳐 다시 수출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마. 해외사업에서의 상생협력 구축

해외에 동반 진출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의 구도가 개별 기업 간 경쟁에서 네트워크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는 바,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 사업에 있어서도 상생협력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신용도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납품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대기업 신용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협력사들의 납품대금 조기결제 및 유동성을 확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바. M&A 지원 강화

지분 인수(M&A)의 경우 에너지 자원 확보, 선진 기술 습득, 현지시장 진출 용이성 등 이외에도 신설법인 설립 방식보다 매출 증가세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M&A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선진국 기업 M&A의 경우 모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가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일정 범위에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의 국제 M&A의 실패와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조사하여 기업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 중국 등 신흥국에 대한 현지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전개될 필요성이 있는 반면 이들 국가의 제도가 불투명하여 M&A의 위험성은 더욱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의 불투명성, 금융 기법, 정부 제도 활용 방법, 중개기관 등에 중점을 두어 조사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 무역수지 악화 분야의 모니터링과 구조조정 대응

무역수지가 최근에 악화되는 추세에 있는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구조조정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주요 해외직접투자 업종인 전기전자에서 현지제조업 법인과외의 무역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전기전자의 특정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기업이 집약되어 있는 공단 혹은 지역은 공동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필요시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초 의복 및 신발 산업의 해외투자 러시로 특정 지역에서 공동화 현상이 야기되었던 경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광업의 경우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입액이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수입선이 한국 기업으로 변화된데 따른 것이므로 예외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기적으로 산업단지 등 제조업 밀집지역에서 특정 세부 업종에서 고용, 업체 동향 등에서 구조조정 여부에 대한 정기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전기전자 등에서 역수입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해외투자를 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 내 전기전자 중소기업을 최종재 공급기업,

부품 공급기업 그리고 해외투자 유무 등으로 분류하여 반기별로 출하량 등을 모니터링 하고 급변하는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입안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의복산업의 해외직접투자 시 모기업은 패션 등 고부가가치 직종으로 업종 전환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종 전환에 필요한 자금지원이나 교육훈련을 구조조정 업종에 대한 맞춤형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 무역에 대한 시각 조정과 통상 협력

한국 수출에서 현지법인과의 수출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입에 대한 시각 조정이 필요하다. 수출의 경우 모기업과 현지법인간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환율 등 전통적인 수출 영향 요인의 영향력은 저하되고 있으며, 수입도 한국 현지법인에 의한 것이 많아짐으로써 단순한 외국 제품이라는 시각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즉, 수입 감소가 한국 모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법인의 활동이 수출입의 확대 균형에 크게 기여하여 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통상 협상에서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수출입의 확대 균형을 모색하는 정책 방안에서 해외직접투자의 역할을 제시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모색하여야 하며, 특히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는 수입이 상당 부분 한국 기업에 의해 행하여진다는 면을 강조함으로써 통상협상에서 투자 환경 개선의 지렛대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5장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의 APEC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투자유치가 한국의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주목적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해외투자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본 논문이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였다.

해외직접투자가 무역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수출유발효과, 수입전환효과, 수출대체효과, 역수입효과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수출유발효과는 해외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투자국으로부터 조달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출증대 효과이며, 수입전환효과는 투자국이 수출을 위해 수입했던 원부자재들을 해외에서 조달하여 수입이 감소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수출대체효과는 해외생산을 통해 현지에서 직접 판매함에 따라 투자국으로부터의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이며, 역수입효과는 투자국이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여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효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한 투자형태, 투자 단계별로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세계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관련하여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의 2014년도 ‘세계투자보고(World Investment Report)’에 따르면 2013년에 각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액(Foreign Direct Investment)이 1조 45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국으로 가장 매력적인 국가는 미국으로 2013년도 1880억 달러였다. 이는 투자대상국 2위의 지위를 가진 중국에 대한 FDI보다 50% 가량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미국의 경우 셰일가스(Shale Gas) 등 석유와 가스 분야에 대한 흡수합병이 80% 이상 증가돼 미국에 대한 FDI액이 크게 증가했다. 저렴한 셰일 가스 덕분에 미국은 FDI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된 셈이다.

중국의 경우는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자원 투자가 크게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워낙 낙후된 지역으로 이 지역 국가들은 인프라 등 기본적인 투자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 FDI는 더욱 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지난해 FDI는 10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며 중국의 해외 투자액이 중국으로 유입 투자액을 넘어섰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며 2~3년 내에 1240억 달러의 중국의 FDI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한국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는 아시아, 북미, 유럽의 순이며, 상위 3대 지역 투자비중은 전체의 77.2%를 차지하며 2009년 88.8%에서 지속적으로 감소중인 바, 투자지역의 다변화가 진행중이다. 아시아와 유럽은 투자가 증가한 반면, 북미는 2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는 베트남 등 아세안신흥국 및 최대 투자국인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74.4%로 높은 가운데, 투자금액은 상위 5대 국가 중 홍콩을 제외하고 2012년 대비 모두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증가한 반면, 광업과 전문서비스업은 투자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의 투자 상위 3대 업종인 제조업, 광업, 금융 및 보험업의 비중이 71.5%를 차지하는 가운데, 광업은 24.9% 감소를 기록하며 2011년 이래로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실적은 경제규모를 고려하여 타 경쟁 대상국과 비교할 때 아직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 기준 한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은 도착금액 기준으로 9,802백만달러 규모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275백만달러로 전체 투자유치금액의 4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이 5,489백만달러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한국의 對APEC 전체상품 수출실적은 328,831백만달러로 전세계 수출의 72.9%를 차지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對APEC 제조업수출은 68.3%를 점하고 있으며 비제조업 수출은 80.7%에 다다르고 있다. 한편 수입도 전세계 수입의 71.9%에 달하는 299,116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APEC 국가별로는 중국과의 교역액(수출+수입)이 228,920백만달러로 전체 對APEC 교역액의 32.4%를 차지해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14.7%), 일본(13.4%), 싱가포르(4.6%)의 순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2013년 상품무역수지는 2000년 15,889백만달러에서 108,845백만달러로 흑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PEC 국가별로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국(62,818백만달러)이며, 홍콩(25,827.8백만달러), 미국(20,565백만달러) 순을 보이고 있으며, 베트남, 싱가포르, 멕시코, 필리핀 대만, 캐나다, 뉴질랜드의 순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APEC 국가 중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적자국(-25,367백만달러)으로 나타났으며, 호주, 말레이시아, 칠레 등이 적자국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한국의 對APEC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APEC 지역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의 6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부문 FDI 실적은 7,201백만달러로 한국의 전체 제조업부문 FDI의 76.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APEC 국가로부터의 외국인투자유치는 2013년 기준 8,778백만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유치의 60.3%를 차지하였다.

APEC 국가별로는 한국의 최대 제조업부문 FDI 대상국가는 중국으로 2013년 기준 투자금액은 4,509백만달러로 對APEC 전체 투자의 무려 62.6%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베트남 10.5%, 미국 6.2%, 태국 5.8%, 인도네시아 3.4% 일본 3.0%의 순을 기록하였다.

본 연구의 주목적인 한국의 APEC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투자유치가 한국의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중력모형을 기초로 한 계량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對APEC 해외직접투자의 무역효과와 관련한 가설(가설1-4)을 검증한 결과,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한국의 對APEC 국가에 대한 제조업부문 해외직접투자는 중간재 조달의 형태를 띠면서 모든 산업 부문의 자본재, 중간재 및 부품 등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반면 수출기업이 국내 생산 후 수출에서 현지법인 생산 후 현지국 판매로 전환하면서 한국의 對APEC 수출총량은 감소한다는 가설 2는 모든 산업 부문에서 기각되었다.

또한 국내생산 후 국내공급에서 현지법인 생산 후 국내공급으로 전환하면 한국의 對APEC 수입총량이 증가한다는 가설 3은 분석모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

채산업, MTI0(농림수산업), MTI1(광산물), MTI3(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MTI4(섬유류), MTI5(생활용품), MTI7(기계류), MTI8(전기전자제품)에서 채택되었으나, MTI2(화학공업제품), MTI6(철강금속제품)에서는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내생산 기반 이전으로 중간재 및 부품을 투자국 현지에서 조달하면 한국의 對APEC 수입총량은 감소한다는 가설 3은 고정효과모형에서 MTI4(섬유류)와 MTI6(철강금속제품)에서 채택되었다. 여기서 섬유류의 무역효과는 분석모형에 따라 그 효과가 역수입효과와 수입대체효과가 모두 지지됨에 따라 통계적 안정성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의 APEC 국가로부터의 외국인투자유치의 무역효과와 관련한 가설(가설 5-8)을 검증한 결과, 먼저 한국의 APEC 국가로부터 외국인투자유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내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본국(투자국)으로부터 조달함에 따라 한국의 對APEC 수입총량을 증가시킨다는 가설 4를 검증한 결과 전체산업, MTI3(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MTI7(기계류) 및 MTI8(전기전자제품)에서 채택되었다.

반면 투자기업이 국내 생산 후 수출에서 한국내 현지법인 생산 후 한국내 판매로 전환하면서 한국의 對APEC 수입총량이 감소한다는 가설 5는 MTI0(농림수산업)에서 채택되었다.

또한 국내생산 후 국내공급에서 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이후 현지법인(한국) 생산 후 국내(투자국) 공급으로 전환하면 한국의 對APEC 수출총량이 증가한다는 가설 6은 전체산업, MTI0(농림수산업), MTI6(철강금속제품), MTI7(기계류), MTI8(전기전자제품)에서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설의 검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시사점을 해외직접투자 지원정책의 효율성 확보, 신흥국 정보 제공 확대 필요, 맞춤형 전문 인력 교육 제도 강화, 중소기업 현지법인 경영 및 수출입 지원 강화, 해외사업에서의 상생협력 구축, 인수합병(M&A) 지원 강화, 무역수지 악화 분야의 모니터링과 구조조정 대응 및 무역에 대한 시각 조정과 통상 협력 측면에서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분석단위를 MTI 1단위를 중심으로 하여 각 APEC 회원국별 수출입실적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였으나 FDI변수를 자료의 제한으로 각 산업별 실질 투자액으로 세분화하지 못하고 제조업 부문 FDI 및 외국인투자유치실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각 산업별 무역효과에 왜곡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FDI의 간접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를 설정하지 못하였고, FDI나 외국인투자유치가 국내 생산이나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분석모형을 더욱 정교히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업차원의 분석을 실시하여 해외투자의 무역, 생산 및 고용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 「금융학회지」, 제3권, 제1호, 1998.
- 김완중, "한국의 동남아에 대한 직접투자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동남아시아연구」, 제22권, 제1호, 2012.
- 김유신, "해외투자의 수출입유발효과 분석 및 정책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국수출입은행, 2011.
- 김준동, "글로벌화 시대에서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 김혁황, 현혜정,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국제통상연구」, 제16권, 제3호, 2011.
- 산업자원부,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시사점," 2005.
-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014.
- 서영경, 이한영,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조사통계월보」, 02-10, 한국은행, 2002.
- 양평섭, "한국의 중국 지역별 수출유발효과와 수출결정요인 분석," 「한중사회과학연구」, 2007.
- 양평섭, 최의현, 남수중, "중국의 중단기 경제발전 전망과 한·중 교역구조 변화 추정," 「현대중국연구」, 제8집, 제1호, 2006.
- 오초균, "해외 간접투자 확대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유재원,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무역 및 생산효과," 「국제경제연구」, 제2집, 제2호, 한국국제경제학회, 1996.
- 이만석, "한국의 대중국 FDI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이영광, "제조업부문의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투자의 한국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 연구," 「무역학회지」, 제34권, 제4호, 2009.

- 이은석, 이정옥, 박나연, 김유신, “국내기업 해외현지생산 확대의 영향 및 시사점,” 「BOK 경제리뷰」, No. 2012-4, 2012.
- 이재우, “대 중국 해외직접투자가 대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중국 WTO 가입에 따라 변화를 중심으로,” 「수은해외경제」, 2004.
- 이청수, “FDI와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 이학노, “해외직접투자의 수출입유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제조업부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제현정, “확대되는 해외직접투자, 우리 수출에 득(得)인가 실(失)인가?” 「Trade Focus」, Vol. 11, No. 46,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012.
- 하병기, “제조업 해외투자의 평가와 과제: 해외법인의 영업활동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04.
- 한국수출입은행, “2012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전망,” 「FDI Research」, Vol. 2013-03, 산업투자조사실 해외직접투자분석팀, 2013.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의 수출입유발효과 분석 및 정책 시사점에 관한 연구,” 2011.
- Blomstrom, Magnus, Robert E. Lipsey and Ksenia Kulchychy, *U.S. and Swedish Direct Investment and Exports*, in R. Baldwin, ed., *Trade Policy Issues and Empirical Analys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 Demurger, S., *Economic Poening and Growth in China*, Development Centre Studies, OECD, 2000.
- Frankel, J. A. and Wei, Shang-Jin, *ASEAN in a Regional Perspective*, UC Berkeley Working Paper, c96-074, 1996.
- Hejazi, W and A. E. Safarian, "The Complementarity Between U.S. Foreign Direct Investment Stock and Trade," *Atlantic Economic Journal*, Vol.29, No.4, 2001.
- Helpman, E., "A Simpl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with Multinational Corpor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92, 1984.

- Kawai, M. and Urata, S., *Are Trade and Investment Substitute or Complement: An Empirical Analysis of Japanese Manufacturing Industries, 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in the Pacific Basin: Trade, Investment and Environmental Issu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Kawai, M., "Interactions of Japan's Trade Investment; A Special Emphasis on East Asia," *Discussion Paper Series No. F-39*, Institute of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Tokyo, 1994.
- Kim JuneDong and Kang InSoo, "Outward FDI and Exports: The Case of South Korea and Japan," *Journal of Asian Economics*, Vol.8, No.1, 1997.
- Kojima, K., "Japanese and American Direct Investment in Asia: A Comparative Analysis," *Journal of Economics*, Vol.26, 1985.
- Lipsey Robert E. and Merle Y. Weiss, "Foreign Production and Exports of Individual Firm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6, No. 2, 1984.
- Lipsey. Robert E. and Merle Y. Weiss, "Foreign Production and Exports in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63, No.4, 1981.
- Lipsey. Robert E. and Merle Y. Weiss, "Foreign Production and Exports in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66, No.2, 1984.
- Markusen, James R. and Keith E. Maskus, "General Equilibrium Approaches to the Multinational Firm: A Review of Theory and Evidence," *NBER Working Paper*, 8334, 2001.
- Mundell, R. A., *International Economics*, The MacMillian Company, 1968.
- OECD, *Handbook on Economic Globalisation Indicators*, 2005, p.49; OECD, *Benchmark Defini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ourth Edition, 2008.
- Paul S. Armington, "A Theory of Demand for Products Distinguished by Place of Production," *IMF Staff Papers*16, 1969.

- Robert. C. Feenstra, James A. Markusen and Andrew K. Rose., "Using The Gravity Equation To Differentiate Among Alternative Theories of Trade." *NBER Working Paper*, No. 6804, 1999.
- Svensson, Roger, "Effects of Overseas Production on Home Country Exports; Evidence Based on Swedish Multinationals," *Weltwirtschaftliches Archiv*, Vol.132(2), 1996.
- Vernon, R,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46, 1966.
- Yamawaki, Hideki, "Exports and Foreign Distributional Activities; Evidence on Japanese Firms in the United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73, No.2, 1991.
- Zvi Bodie, Alex Kane and Alan J. Marcus, *ESSENTIALS OF INVESTMENTS*, McGraw-Hill Irwin, 2005.